

**금주일언** 무척 현명한 사람은 세상 일에 빠지지 않아 자식이나 재물이나 나라를 원치 않으며, 항상 지혜의 계율의 도를 지켜 그릇된 부귀를 탐하지 않는다 (법구경·명철품 260절)

# 東大新聞

발행처: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발행인: 김기영  
 편집인: 김기영  
 발행부수: 100  
 구독료: 1000원  
 판매처: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100-715 서울시 중구 평동3가 26  
 ☎(02)260-3491~2 FAX(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0561)770-2057

제 1221 호

(주간)

1964. 1. 1 등록번호 다-10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7년(불기2541년) 4월 7일 (월요일)

## ‘동국이 앞장서 경제를 살리자’ 98년도 대학입학전형 주요계획 발표

학내 3주제 ‘아껴쓰기 운동’ 선포식 개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사회전반에서 나타나는 가운데, 본교도 ‘대학인이 앞장서 국가경제를 살리자’는 기치를 내걸고 이를 구체적인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그 첫걸음으로 오늘(7일) 오후 2시 불상실에서 학내 3주제인 교수회·직원노조·총학생회가 함께 모여 ‘아껴쓰기 선포식’을 개최한다. 이 선포식은 현 사회의 경제가 겪고 있는 무역적자, 중소기업 부도를 증가시키는 위기를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대학도 소비절약을 통해 조금이나마 경제난 회복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여기에 본교가 앞장서겠다는 것을 알리는 자리라 할 것이다.

이날 식은 △ ‘아껴쓰기 운동’ 선언문 낭독 △ ‘아껴쓰기 운동’ 행동강령 제정 △ 총장 격려사 △ 향배를 점화 △ 실전운동 등으로 진행되며 ‘아껴쓰기운동’을 일리는 스티커 부착과 교내 청소

를 통해 여러 동국인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운동의 행동강령은 다음과 같다.

△ 물품을 아껴쓰자. △ 전기를 아껴쓰자. △ 기기를 아껴쓰자. △ 종이를 아껴쓰자. △ 교육시설을 아껴쓰자. △ 버려지지 않고 나누어쓰자. △ 재 활용을 합시다. △ 자연환경을 보호 합시다.

한편,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여학생 부처에서는 기존에 운행해 왔던 일출 정터를 확대해, 활용가능한 생활용품들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 대해 김익기 교수회장은 “우선 대학의 3주제가 연합 했다는 데 매우 큰 의미가 있고,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현시기에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껴쓰기 운동이 전통적인 선진국에서 전진국으로 확산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총 5천3백1명 모집... 서울캠 나군, 경주캠 라군  
 한의예2%, 경창행정·연극영상이론 4% 등 특차지원 자격 강화돼

본교 9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주요계획이 결정, 발표됐다. 전형일자는 서울캠 캠퍼스의 경우 98년 1월 12일부터 18일까지인 나군에, 경주캠 캠퍼스의 경우 98년 1월 22일부터 26일까지인 라군에 속하며 재외국인 및 외국인 특례모집 1백명을 제외하고 총 5천 2백 1명을 모집한다.

98학년도 본교 대학입학전형 시험기간, 모집인원, 전형요소 등은 다음과 같다.

▲ 시험기간 = △ 특차모집은 97년 12월 23일~26일 △ 정시모집은 서울캠 나군 97년 1월 12일~16일, 경주캠 라군 97년 1월 22일~26일 △ 재외국인 및 외국인 특례 모집은 11월 중순경

▲ 모집인원 = 총 5천 2백 1명(재외국인 및 외국인 특례모집 1백명 제외)으로 특차모집에 1천3백67명, 정시모집에 3천 8백 54명을 모집한다.

특차모집시 서울캠 캠퍼스의 경우 일반전형 9백 35명, 특별전형 9백 6명(농어촌 88명, 취업자 4백 70명, 특수교육대상 8명)으로 1천3백 99명, 경주캠 캠퍼스의 경우 일반전형 60명, 특별전형

1백8명(농어촌 62명, 취업자 42명, 특수교육대상 4명)으로 1백68명을 모집한다.

정시모집시에는 서울캠은 1천 8백34명, 경주캠은 2천명을 선발하여 총 3천 8백 54명을 모집한다.

▲ 전형요소 = 특차모집시 전형비율을 살펴보면 △ 일반전형은 수능성적(60%) + 내신성적(40%)이고 △ 특별전형은 수능성적 1백%로 대상은 농어촌, 취업자, 특수교육대상자에 한한다.(특기자, 소년소녀가장은 정시모집)

정시모집시에는 서울캠 캠퍼스 △ 주간인문·자연계는 수능 성적(55%) + 내신성적(40%) + 논술(3%) + 면접(2%)이고 △ 야간 정계열은 수능성적(60%) + 내신성적(40%)이고 △ 예체능계는 수능, 내신, 실기로 모집한다.(모집단위별로 다르다) 특별전형종 특기자, 소년소녀가장은 일반전형과 동일하다. 경주캠 캠퍼스는 수능성적(60%) + 내신성적(40%)으로 △ 사범대 학과의 경우 면접이 2%인영되어 수능(58%) + 내신성적(40%) + 면접(2%)로 치뤄지며 △ 예체능계는 실기고사사 반영되어 수능,

내신, 실기로 치뤄진다.

▲ 내신성적 반영방법 = 내신반영 방법은 교과과정(33%) + 비교과성적(2%)이다.

지난해와 달리 학교가 지정한 4영역에서 각 1과목씩 선택해야 하고 학년별로 선택과목이 같아야 한다. 비교과영역 반영은 특차때까지 교육부에서 학생생활기록부 최종자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출결사항만을 반영하며 정시 때는 지난해와 같이 출결, 특별활동, 봉사활동, 자격증 및 수상 등 비교과영역 항목 전체를 반영한다.

▲ 특차 지원자격 = 서울캠 캠퍼스의 경찰행정학과, 연극영상이론전공이 4%, 인문계 7%, 전자전기 10%, 건축토목, 정보산업 9% 등 전체적으로 지원자격이 강화되었고 이과대학 자연과학부,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명자원과학부, 공과대학 공학계열은 특차모집시에는 선발하지 않겠다고 했다.

경주캠 캠퍼스도 한의예과가 지난해 4%에서 2%, 의화계열은 5%에서 4%로 강화되었고 관광경영학과는 지난해와 같은 20%이다.

## 동국로알대학 신입생 모집

전공불문하고 서류·면접으로 선발... 24일 접수마감

지난해 해외본교로 설립된 로스앤젤레스 소재 동국로알대학이 1997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입학자격은 전공에 관계없이 전문대 졸업이상이나 4년제 대학의 60학점이상 취득자로, 서류와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원서교부 및 접수는 연구교류처 학술교류부에서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하며 오는 24일 면접을 볼 예정이다. 이에 선발된 학생들은 비자관계로 10월에 입학할 수 있다.

동국로알대학은 1년에 4학기제로 1월, 4월, 7월, 10월에 학기를 시작하며 한 번에 40여명 입학이 가능하다. 수업년한은 4년이지만 학점취득의 여하에 따라 조기졸업도 가능하며 학비는 4년

간 약 2만 1천 달러로 한화 약 2천만원 정도이다.

졸업시에는 한의학 학사학위가 주어지며 캘리포니아주 한의사 면허 응시자격과 NCCA(미국연방연회)응시자격이 부여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한의사 시험의 응시자격은 없다. 동국로알대학은 영어, 한국어, 중국어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원하는 언어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동국 로알 대학’에 대한 설명회가 오는 8일 오후 3시 학술문화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날 설명회에는 로알 대학의 실무진들이 직접 와서 설명하고 자료를 배부하고 질문시간 등을 가질 예정이다.

## 97 지산 학생 건축 공모전 건축공학과 김종관군 대상 수상

97 지산학생 건축공모전에서 본교 건축공학과 4학년 김종관군이 대상을 수상했다. 1인 1작 단독작품에 한하여 국내 대학교(대학원포함), 전문대학, 해외유학 건축관련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 공모전은 지산학회 주최로 건축인 인재양성과 장학생선발을 위해 개최되었다.

이 공모전은 ‘내구 광역시 중구 동성로 대구 백화점앞 광장과 대지에 머

무를 수 있는 공적인 공간과 개개의 사적인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문화, 상업공간을 거리의 공유, 통과·여과, 도시의 아이덴티티 부여’를 주제로 했다.

이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 1년간의 등록금 전액과 10만 11일간의 유럽 건축여행의 기회를 얻은 김종관군은 지난해 열린 제 15회 건축대전에서도 특선에 입상한 경력이 있다.

## 우수 연구기관·교외연구비 수주자 선정

교내연구 활성화 도모... 연구실적종합평가로 계열별 선정

연구교류처(처장=박기덕·수학) 연구교류부는 지난 3일 98학년도 우수연구기관 및 교외연구비 수주 우수자를 선정, 지난 3일 총장실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우수 연구기관으로 인문계열은 한국문화연구소(소장=홍기삼·국어국문학), 사회계열은 경제경영연구원(원장=전정원·무역학), 자연계열은 산업기술 연구원(원장=이문보·건축공학)이 선정되었고 우수 부속기관으로는 경주캠 캠퍼스 박물관(관장=황상주·미술학)이 선정되었다. 우수 연구기관은 98학년도 1년동안의 연구비 확보실적, 학술제나 개최 등 학술활동실적과 학술지 발간 등 연구실적을 종합평가하여 계열별로 선정하였다.

교외연구비 수주우수자로 선정된 교수는 인문계열에서는 홍기삼(국어국문학)교수, 사회계열에서는 이영재(경영학)교수, 자연계열에서는 강태원(자연과학)교수, 예체능계열에서는 김홍우(연극·영상학)교수, 의화계열에서는 김철호(한의학)교수이다. 교외연구

비 수주 우수자 선발기준은 지난 1년 동안 교외에서 연구비를 가장 많이 수주한 교수를 계열별로 선정할 것이다.

한편, 선정된 우수연구기관에는 각각 1백50만원, 우수부속기관에는 1백만원, 교외연구비 수주우수자에게는 각각 1백만원씩이 지급됐다.

각 1백50만원, 우수부속기관에는 1백만원, 교외연구비 수주우수자에게는 각각 1백만원씩이 지급됐다.

## 교수평의회, 세미나 개최 ‘차기 정권의 자격론-정통성을 중심으로’

지난 4일 교수평의회(회장=강석원·일어일문학)는 개교90주년 기념 학술관에서 ‘차기정권의 자격론-정통성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회학과 강경구 교수의 논문발표로 진행됐으며, 토론자로는 정치외교학과 황태연 교수가 참석했다.

발표논문은 대선 후보자 10여명을 권력부리·권력창출·권력행사의 정당성 3가지로 나누어 정수를 매겨 분석

했다.

이에 대해 강경구교수는 “차기대선을 앞두고 일반인들의 인몰평가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보기에 어떤 객관적 기준을 설정을 통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논문발표의 의의를 말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황태연교수는 주제발표가 끝난 후 ‘현정치에서 단위정기전의 현실적용 가능성 여부’에 관해 지적해 토론을 벌였다.

## 보리수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자가 하는 것이 자살행위이다. 생의 의무와 지혜의 여명이 완전히 끊어진 점에서 자살이라는 자포자기의 일을 저지르게 된다. 살아있는 자의 생명을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천지인물 가운데 함부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자는 오직 사탄뿐이다. ‘인물의 영광’이라고 자처하는 인간이 가장 어려운 것을 하는 것을 볼 때 이 세상을 파괴하고 모순의 구렁이로 스스로 매몰될 자가 과연 누구

## 향기로운 사회

이제는 국민적인 사람들이 보던 자기 스스로를 해치고 남까지 망쳐놓는 일을 너무 쉽게 자행하고 있다.

정치권력에 눈이 멀어 찬방지축 날뛰는 정치인들, 국민경제가 어찌되든지 내만 돈벌고 잘되던 된다는 재벌들과 외제수입자들, 남이 공부하든 말든 도서관 앞 교정에 학생기를 틀어놓고 외치는 일부 학생들 등 모두가 자신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권세로 선풍한 국민이나 순수한 학생들을 내세워 소수의 이기심만을 관철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정치인이나 재벌 그리고 학생권력층은 한시 바빠 대중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방법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그들 또한 자멸의 길을 걷고 말 것이다.

YS가 좀더 일찍 자신의 권력과 자신 애착에 대한 주변의 고변을 받아들이고, 가까운 측근을 잘 살펴대려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모진 입살에 오르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소위 운동권 학생들도 일반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수들과 교직원들의 생활터전을 더 이상 침해하거나 깨뜨리지 말고 자비와 봉사정신으로 더불어 사는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이다.

불교의 무아(無我) 사상이란 곧 더불어 사는 봉사정신이다. 대중이 의뢰하는 것을 하면 곧 의뢰될 것이고, 결국 자기가 살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과다한 이권과 자기욕심에 도취되어 분별없는 것을 하면 그것이 곧 자해행위이다.

이제부터라도 남을 생각하고 남을 위하여 더불어 사는 생각으로 내 가까운 주변부터 애정을 갖고 다수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만 진정한 향기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 이 법산

불교대 선학과 교수

## 신행실수교육 실시

정각원(원장=이법산·선학)은 오는 11일 ‘정제초교신행실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총 2부로 치뤄질 이번 교육은 1부에서는 △삼귀의 △삼경봉독 △총무처장 인사 △정각원장 법어 2부에서는 △예절 및 신행실수 △백관참회 △좌선 등의 순서로 치뤄질 것이다.

정각원 안중철 법사는 “본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참된 불자로서 자기모습을 찾고 학문정진에 더욱 힘쓰길 기원하기 위해 행사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 역경원, 책번역·완간

역경원(원장=김성구)은 지난 1일 ‘아비달마비리아야사’와 ‘아비달마장현종론’을 번역·완간했다.

‘아비달마비리아야사’는 당나라 의

## 본사사령

- ◇ 임수승기자
  - △ 유철주(문과대 인문학부)
  - △ 김미경(문과대 한국어문학부)
  - △ 광동원(사과대 신문방송학과)
  - △ 조은순(사범대 역사교육과)
  - △ 이희은(법정대 법정학부)
  - △ 박도연(상경대 경상학부)
  - △ 장희정(상경대 경상학부)
  - △ 정진수(상경대 경영학부)
- (이상 4월 7일자)

아껴쓰기  
기회광고  
1

# 두 얼굴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  
 미팅때 돌려지는 작은 명함.  
 게시판마다 덕지덕지 붙어있는 대자보  
 한번보고 미련없이 버려지는 자료복사물  
 끊임없이 쏟아져나오는 홍보책자 ...

대학에서 가장 함부로 버려지는 것은  
 우리가 가장 유용하게 쓰는  
 ‘종이’입니다.  
 사람에게만 두얼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이에게도 두얼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 쉽게 잊고 있지 않습니까  
 종이의 두얼굴, 이면지를 사용합시다

”

## 동대신문사

### 진정한 애국 모두의 작은 노력으로

학교 정문을 지나 백상탑으로 올라 오다 보면 여기 저기에 비문에 휘날리는 프래카드들이 우리를 맞이한다.

그 중에서 나의 시선을 끄는 하나의 문구가 있었다. 유관순 누나는 가슴에 태극기를 품고 다녔지만 지금 교정에는 성조기가 휘날리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 글귀를 읽고 무심코 지나 가려다가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 했다. 태극무늬의 곡선이 잘못 그려져 있는 것이다. 물론 '목'의 티를 찾아라'도 아니고 이런 것을 가지고 뭘 그렇게 따지느냐고 질문 하는 이도 있었지만 나의 견해는 그렇지 않다.

다른 내용도 아니고 국기에 대해 언급하면서 태극기를 잘못 그리는 것은 언뜻 이해가 되질 않았다. 굳이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 앞면을 뒤져 보지 않더라도 태극기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는 것은 알아두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

그림을 직접 그렸던 이의 비고의적인 실수이냐고 짐작은 되지만 개인이 쓴 글도 아닌 것 같고 무슨 단체에서 내놓은 글귀 같던데 한 번이라도 살펴 봤더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학교에도 외국인 교수님들이나 외국인들이 자주 출입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들 중 우리나라 국기에 대한 조그만 지식으로 이런 잘못된 점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재네들은 우리나라 성조기 가지고 비판하면서 저희나라 국



문의는 (02)260-3491 · (0561)770-2057 · 8

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할지 않을까? 물론 극단적인 예이다.

난 솔직히 앞선 글귀의 내용도 전면으로 동의하는 바는 아니다. 이런 어설픈 애국주의식 발언은 배타적이고 독단적인 국가관을 심어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성조기는 외국 문화가 우리나라에 너무나 침투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메타포라고 생각하지만 무턱대고 국수주의는 아무런 논지없이 외쳐대는 웅변과 같다고 생각한다.

광고 중에 유관순 누나 비슷하게 나오면서 신발 팔아 먹으려는 속셈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그림 그 상포도 우리나라 순 한글로 고쳐 부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듯 남 뒤뜰수 치는 듯한 문구는 일시적인 흥분만 고취 시킬 뿐 아니라, 자국에 대한 사랑은 커녕 다른 나라에 대한 증오심만 불러 일으키게 된다.

필자도 솔직히 진정한 애국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바이다. 그렇지만 이런 방법으로 시선만 끄는 애국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윤 제 서  
(인문과학대 영문과)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4~5매 분량의 글이나 사진, 시, 만화를 기 바랍니다. 하이텔(DGU9번방, ID:dgpress메일)과 여론함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 '보리수' 김치전이 그리운 이유

요즘 드라마에서 우리학교를 자주 볼 수 있다. 옛스런 멋과 깨끗하게 단장한 교정이 적절히 어우러져 처음에는 어느 대학이 저렇게 좋은가 부러워하다가 나중에 우리학교임을 알고 나면 깜짝 놀라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특히 보리수의 경우가 그렇다. 공사를 끝낸후 다시 가 본 보리수는 신세대의 분위기에 맞게 깨끗하게 세단장을 했고, 음식메뉴도 기존의 칼국수, 수제비에서 샌드위치, 원두커피 등으로 대폭 바뀌었다. 아니 바뀌었다기보다 아예 단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드라마 '짝'에 나온 보리수는 정말 훌륭했다.

그러나 가격대도 분위기에 맞추려는지 대폭 인상되었다. 천원짜리 한 장이면 줄면도 먹을 수 있고, 수제비와 떡만두 사이에서 갈등하는 즐거운 고민을 즐길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흐주머니 사정이 딱지 않은 날에는 아예 보리수는 일찌감치 포기 대상이다.

점심메뉴 중 볶음밥종류가 거의 3천원대이니 학교식당이라는 이름마저 무색하게 할 정도다. 그렇다고 음식맛이 가격이 오른만큼 맛있어 진 것도 아니다. 오히려 다량판 김치 볶음밥보다 못한것 같다.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식당은 식당이다. 식당을 찾는 학생들은 밥을 먹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싼 값에 질 좋은 음식을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보리수는 이러한 요구를 담아 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의 식사는 판매하지 않고 분식종류만 판매를 하니 때를 놓친 학생들은 다른 식당을 찾아가야 한다. 학생을 위한 학생식당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깔끔하고 산뜻한 보리수의 분위기에 값싸고 맛있는 음식을 기대해 보는 것은 학생들에게 너무 먼 현실인가.

그래서인지 비오는 날이면 보리수의 김치전이 그리워진다.

배 승 완  
(사회대 사회과학계열)

### 새학기 수업정착 한 주라도 빨리

새학기가 시작될지 한달이 지났다. 일주일에도 4일 학교에 나와서 18시간을 공부하기 위해 주말동안에 약 2백만원의 돈을 낸다.

그러나 3월 한달동안 교양과목인 초급영어회화와 지리학 입문은 수업을 받지 못했다. 4주가 지나서야 최종 수강학인을 했고, 제대로 된 수업을 받게 됐다.

30시간을 그냥 보낸 문제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너무 많은 학생, 부족한 교수, 비좁은 강의실에 대해 말이다.

전학기에 수강신청이 끝나면 방학 중에 학생수가 파악되고 그 후 교수의 포섭, 그리고 분반을 하면 된다. 그러면 새학기 첫주에 수강정착을 하고 그 다음주엔 수업을 어느정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지 못하는 건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재학생의 수가 파악되고 교수가 정해져도 1학년의 수강신청이 입학후에 있어서 미지수인 1학년 때문에 제때 수업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껏 이런식으로 수업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에서나 학생회에서 아직 이것에 대해 왜 문제시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다음해엔 좀 더 일찍 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 근본적 원인은 1학년의 늦은 수강신청에 있으므로 입학전에 수강신청기간을 두면 된다. 그러면 학생수의 파악을 개강전에 끝낼 수 있을 것이고 분반이나 교수님도 보다 일찍 정할 수 있다.

교양은 교수님 또는 과목을 보고 신청하기 때문에 수업에 한 번 참석

하고 난 뒤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수강정착을 새학기 시작후 해야 하지만 1학년의 수강신청만 앞당겨 진다면 한달동안 지연된 수업이 2주면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학교와 학생회에서 이 문제를 생각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모두가 눈을 크게 뜨고 주시 해 보았으면 한다.

허 경 희  
(성경대 관경과)

### 총여 출범식 여학생들은 어디에

지난 3월 27일에 있었던 총여학생회의 출범식을 보고 몇 자 적어보고 싶다. 비록 나는 남자지만,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참석 했다.

여러 노래패들의 공연과 그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었던 연극 'ain'을 보고 나 자신은 여자가 아니지만 이 땅에서 여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 여자들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여자들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고, 여자들이기 때문에... 단지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겪어야 하는 그네들의 서글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움이 남았다. 나는 그 날 약 10분 정도 늦게 갔었는데, 도착해 보니 겨우 20여명만이 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그것도 3분의 1은 남자들이었다.

많은 여학생들이 참석하리라 예상했던 나에겐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왜냐하면 저쪽에 크게 불어 있던 총여 출범 자료를 봐서 흥분과 미흡했던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성차별', '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포섭, 그리고 분반을 하면 된다. 그러면 새학기 첫주에 수강정착을 하고 그 다음주엔 수업을 어느정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지 못하는 건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재학생의 수가 파악되고 교수가 정해져도 1학년의 수강신청이 입학후에 있어서 미지수인 1학년 때문에 제때 수업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다음해엔 좀 더 일찍 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 근본적 원인은 1학년의 늦은 수강신청에 있으므로 입학전에 수강신청기간을 두면 된다. 그러면 학생수의 파악을 개강전에 끝낼 수 있을 것이고 분반이나 교수님도 보다 일찍 정할 수 있다.

교양은 교수님 또는 과목을 보고 신청하기 때문에 수업에 한 번 참석

김 광 재  
(사회대 신반과)

### 동/문/칼/럼

### 진부한 진리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니 이제 겨우 4년째, 선배랍시고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얘길 해 준다는 게 참 주눅이 들어 버렸다.

여러 노래패들의 공연과 그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었던 연극 'ain'을 보고 나 자신은 여자가 아니지만 이 땅에서 여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 여자들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여자들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고, 여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되지 못하는 건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재학생의 수가 파악되고 교수가 정해져도 1학년의 수강신청이 입학후에 있어서 미지수인 1학년 때문에 제때 수업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다음해엔 좀 더 일찍 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 근본적 원인은 1학년의 늦은 수강신청에 있으므로 입학전에 수강신청기간을 두면 된다. 그러면 학생수의 파악을 개강전에 끝낼 수 있을 것이고 분반이나 교수님도 보다 일찍 정할 수 있다.

교양은 교수님 또는 과목을 보고 신청하기 때문에 수업에 한 번 참석

교양은 교수님 또는 과목을 보고 신청하기 때문에 수업에 한 번 참석

교양은 교수님 또는 과목을 보고 신청하기 때문에 수업에 한 번 참석

교양은 교수님 또는 과목을 보고 신청하기 때문에 수업에 한 번 참석

교양은 교수님 또는 과목을 보고 신청하기 때문에 수업에 한 번 참석

교양은 교수님 또는 과목을 보고 신청하기 때문에 수업에 한 번 참석

려고 노력하며 살아간다. 이런 다짐들이 물론 다 지켜 지지도 않고 또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가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이 복잡다단한 사회를 살아가면서 내 삶의 한가지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나은 대학생활에 감사를 표하게 되는지 모른다. 이 얘기가 내가 한의과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한의대 후배들에게 국한되는 얘기로 알아 듣는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대학은 직업과 평생의 사고를 지향하는 동시에 또한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이며 장소이다. 그런데 이 둘은 결코 동떨어진 것들이 아니다.

평생의 직업과 평생의 사고를 지향해야 할 가치관이 어떻게 따로 분리될 수 있는가? 뚜렷한 가치관이 없는 직업은 당장은 몰라도 먼 훗날의 자기 모습을 오직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다 늙어버린 철학 없는 삶에 지친 노예로 만들고 말 것이다.

무슨 일을 하겠다며 더군다나 그 일을 평생의 업으로 삼았다면 그 일을 지향해 나갈 정신적, 철학적인 뿌리를 쌓아 놓아야 할 것이다. 그 래야 우선 그 일을 하는 자기자신 이 고귀해 지고, 스스로의 존재가치가 빛이 나고, 당당해 진다. 이 당당함은 돈이 많거나 권력을 쥐게 되어 생기는 당당함과 다르다.

외적인 요소에 의존하는 당당함은 불인간이 아닌 불인간을 안으로 감추고 있다. 진정한 내면의 당당함을 갖추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바로 대학시절인 것이다. 다양한 독서와 풍부한 경험을 쌓으란 얘기도 이런 관점에서 그 참다운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경험이란 그저 자질한 체세의 요령이나 생활의 실질적 기술 몇가지를 익히는 데 그 의미가 있지는 않는 것이기에 말이다.

아무쪼록 마태복을 세우라. 우선 내면의 당당하고 공경하며 또한 이 길을 실천하는 것만이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겠다 싶은 기준을 세우라. 배대만 서면 살뿐이 금방이다. 배대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삶이 불어도 금방 허물어지기 마련이다.

너무 딱딱한 얘기지만 세월이 갈수록 주는 양심의 기둥이 되고 있다. 그 시절 이런 관점으로 인해 관심을 기울이게 된 생태문제에 대한 실천의지로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고자 하는 의식을 목표로 삼게 되어 지금까지도 일상생활속에서 작은 다짐들을 지켜나가

이 4월 둘째 주말에 모교지를 간대요. -젊은 오빠어

매주 화요일 학생 회관 3층 옥상에서 생활 영어 비디오를 상영하니 많이 이용하세요. -여학생부처

총대 대중 통일운동체 통일선언에서 드디어 월수금 1학 연우 만나기 투쟁을 합니다. 온방골 1번 학우들 축하 해주시고, 통일 일꾼 여러분도 끝까지 서사시였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선언 집행들

청산거리와 아이들 날대식이 있습니다. -인본사

그리고 북아 북아 순복아! 대중 먹고살자. -한 선배가

어머님 아버님 민수 무강 하십시오. -멀리 경주에서 아들이

나이 먹으면 동아리 못해! -예비역

친구야! 너무너무 보고 싶다. 사랑한다. -JH

세, 수, 해, 정 그리고 수습들이! 모두 열심히 열심히 살자! 내 허락없이 나가면 혼나! -서울 SG

## 목격골

상군,지성,태준

정치경제학 연구학회 6대 회장을 맡은 조인현(경상'96)학생에게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투쟁!

정경연 정희일 일동

4월5일 씩씩하게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간 강기 철용이의 생일 축하해 주세요.

민아, 영안, 현준, 지성, 창환 드디어 영어 study를 시작하다. 뭐라고? 거로 vaa로 공부한다. 경성학우들이여 축하의 박수를...

96경성학우

목경아! 퇴원 축하하고 빨리 쾌차하길 빈다!

YOUR LOVER

38317

독문 97김지연 양의 생일을 뒤늦게 축하해요.

이쁜이들이서

4월 8일은 예쁜이 행주의(사회'94)생일입니다. 많이많이 축하해주세요.

This glass.

축합격! 무역 '93인재우 국가고시 1차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PS 주행합격도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현준아. 그동안 무술하느라 수고 많았다. 단종 탄 것 축하한다.

## 축하합니다

97학번 윤태원(4월 8일) "독심"에서 생일 축하해요.

97.4.2 불 교육학과 기복부 발족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 5대 기획부

4월 5일로 11년이 되는 1117과 1018의 만남을 축하해요. 함께 할 수 있어도 늘 힘이되는 커플이 되길...

YOUR LOVER

38317

독문 97김지연 양의 생일을 뒤늦게 축하해요.

이쁜이들이서

4월 8일은 예쁜이 행주의(사회'94)생일입니다. 많이많이 축하해주세요.

This glass.

축합격! 무역 '93인재우 국가고시 1차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PS 주행합격도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현준아. 그동안 무술하느라 수고 많았다. 단종 탄 것 축하한다.

## 축하합니다

다음에 한 번 다시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97경성학부 K

정치경제학 연구학회 회장을 맡아 고생한 박상욱(아)경제 '95의 입대를 축하하며 건강하게 군복무 마치세요.

독문과 영화패 Love의 행복한 한해를 기원합니다.

독문인

군산 제일고 동문회 안하나? -광고학과 3년 제일고 31기 중형식

법대 선배·동기·후배님을 하느니 법대 만드느니라 고생하시지요! 열심히 끝까지 힘차게 나아가시길...

어는 '96

고연주, 백지선 화이팅! 너희를 사랑하는 선생님으로부터

법 93 김종길

사랑해요. 리버럴 리!

법대 승철

0404, 1004, 100을 향해 질주!

## 동/악/광/장

다량관 식당		연두부떡볶이(1200)	
양송이볶음밥(1200)	떡볶이(1300)	우양코감자볶음(1300)	공비지떡볶이(1300)
떡볶이(1300)	하이라이스(1200)	소고기야채밥(1300)	순대야채볶음(1200)
오징어볶음(1200)	왕치킨야채볶음(1200)	동국관 학생식당	
최고계(1300)		아묵잡채(1300)	시골우거지국(1300)
산채비빔밥(1200)	만두유계장(1300)	완도채(1500)	황금치찌개(1200)
떡볶이(1300)	커피야채밥(1300)	콩나물동글밥(2800)	생선까스(3200)
왕치찌개(2800)	에탕국(2800)	아찌진골(2800)	돈육보쌈(3200)
설렁탕(3000)	꽃게탕(3000)	오징어순대(3300)	최고기버섯보쌈(3000)

신정아! 스무 번째 생일 축하한다.

목숨건 동아리

총화, 정호형 인대를 축하하며 잘 갔다 와.

전종원

4월 10일 법정 학부2. 친구 이상 주군의 생일 축하해.

법정 학부 일교 CC

97학년도 국사학과 학생회의 출범을 축하합니다.

97 예쁜이

나의 빈 가슴에서 음을 띄운 정복오빠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그리고 이 순간의 기쁨이 영원으로 피어날길 나직이 기도합니다.

경

열심히 합니다

갑자야!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얻는다.

떨어지는 새 한 마리

정은아!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 아르바이트한다고 공부 소홀히 하지 말고

축하합니다

동국불림부 11기 여러분 들어온 거 축하해요.

동국 불림부 선배 일동

재우오빠, 형수님 함하지. 형자, 준자! 대학 생활 능동적으로 열심히 하자.

영순

유성아! 군대에 가서 악으로 강으로 열심히 살거라. 여호와 빛!

김 전도사

수고하셨습니다

한총련 대의원 대회가 4월 6-8일 열렸습니다. 대의원 대회 참가하신 통일 일꾼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통일선언 집행들

청산거리와 아이들 날대식이 있습니다.

인본사

그리고 북아 북아 순복아! 대중 먹고살자.

한 선배가

어머님 아버님 민수 무강 하십시오.

멀리 경주에서 아들이

나이 먹으면 동아리 못해!

예비역

친구야! 너무너무 보고 싶다. 사랑한다.

JH

세, 수, 해, 정 그리고 수습들이! 모두 열심히 열심히 살자! 내 허락없이 나가면 혼나!

서울 SG

4월 둘째 주말에 모교지를 간대요. -젊은 오빠어

매주 화요일 학생 회관 3층 옥상에서 생활 영어 비디오를 상영하니 많이 이용하세요. -여학생부처

총대 대중 통일운동체 통일선언에서 드디어 월수금 1학 연우 만나기 투쟁을 합니다. 온방골 1번 학우들 축하 해주시고, 통일 일꾼 여러분도 끝까지 서사시였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선언 집행들

청산거리와 아이들 날대식이 있습니다. -인본사

그리고 북아 북아 순복아! 대중 먹고살자. -한 선배가

어머님 아버님 민수 무강 하십시오. -멀리 경주에서 아들이

나이 먹으면 동아리 못해! -예비역

친구야! 너무너무 보고 싶다. 사랑한다. -JH

세, 수, 해, 정 그리고 수습들이! 모두 열심히 열심히 살자! 내 허락없이 나가면 혼나!

서울 SG

# 개헌, 권력장악 수단 되어선 안된다



유광진  
사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시사논단

### 개헌논의 그 허와 실

그렇다 해도 국민회의가 아권 후보 단일화를 통한 정권집기의 수단으로 내각제에 접근하면서 공조한다는 것은 다분히 전략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개헌불가를 묵과 있지만 신한국당 내부에서 부정 소리가 커진 내각제론 또는 대통령제 고수도 위기에 처한 여권이 국면전환용 또는 위기탈출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특히 당내 후보 경선에서 유불리(有不利)에 따라 찬반양론으로 갈라지는 모습도 참으로 유치하기 짝이 없다.

우리는 지난날 아홉번에 걸친 헌법개정을 경험한 바 있다. 헌법개정이 대부분 권력쟁취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작금의 권력구조 변경논의도 과거 눈물자국으로 얼룩진 헌정사의 연장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없다.

헌법개정이 나라의 정치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수 권력추구자들의 집권을 위한 편입으로 이용되어 왔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지 1년 7개월만에 당시 야당에 의해 제기되었던 내각제 개헌안부터가 당리당략에 의한 것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을 몰아내고 원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었던 한민당의 내각제도 권력을 장악하려는 계산에서였다. 그러기 위한 이승만 대통령은 장기집권

을 위해 초대 대통령 중임 제한 규정을 철폐하는 개헌을 단행하였다. 이른바 '일체개헌'과 '사사오입'과동이 그것들이다.

4·19혁명후 내각제로 개헌하여 국민적 지지를 얻었으나 정치권의 권력투쟁은 결과적으로 만신창이가 된 채 5·16 군사쿠데타를 맞고 말았다. 박정희 대통령은 68년 헌법을 고쳐 3선의 토대를 마련하더니 72년 아예 영구집권을 꿈꾸면서 유신을 단행하고 말았다.

전두환 대통령은 선거인단선출 7년단임간선제도 헌법을 개정하더니 말기에 이르러서는 집권재정출이 어려울 듯 십자 내각제도의 개헌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3김의 대권욕에 밀려 무산되었고, 87년 5년단임 직선제 대통령제도 개헌을 했다. 이러한 개헌의 악순환은 국가와 민족의 먼 장래까지 내다보는 대승적 견지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다. 특정한 또는 특정한 일의 권력장악을 위한 논리로 이용되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권력구조의 변경은 국가는 물론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막중한 국가대사에 해당된다. 최종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이 선택할 문제지만 적어도 특정 정치인이나 파벌, 정당의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제기될 사안은 결코 아니다.

미국의 경우 1787년 헌법이 제정된 이래 2백

10년이 경과된 오늘날에 이르러까지 한 번도 권력구조의 골격을 바꾼 일이 없다. 일본도 2차대전 후 제정된 내각제 헌법을 지금까지 변함없이 유지해 오고 있다. 금권정치의 관행이 일본의 내각제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시키고 있지만 아직도 개헌논의는 없다. 프랑스도 드골헌법이 제정된 이래 몇차례의 정권교체가 있었지만 헌법을 바꾸자는 논의는 여야 어느 쪽에서도 없었다.

이처럼 선진 민주국가들은 헌법을 함부로 손질하지 않았고 국가 최고 규범으로서의 존중을 받아왔다. 여기에 반해 우리는 결핍하면 헌법을 바꾸자는, 그것도 권력장악을 위한 통치구조를 바꾸자고 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 나라의 정치가 국민소득 1만불에 걸맞지 않는 저질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원인으로 따지고 보면 헌정문란과 결단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인들은 아직도도 걱정하지 못한 채 정당 정파의 이해득실이나 지분 나눠먹기식 차원에서 통치 구조변경을 통해 권력욕을 충족시키려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오늘은 이 말 내일은 저 말을 하고 있다.

이제 3당의 영수들이 '경제 살리기'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통치 제도만을 탓하지 말고 진정한 국민복을 위한 정치가 되도록 정치권은 일대 반성이 있어야 한다.

'가장 훌륭한 정치'는 정치적 순수가 없는 정치'라고 한다. 국민을 담보로 삼거나 논리로 일꾼이 되기를 정치인들에게 부탁한다.

## 사설

### 소비절약의 근본정신

요즈음 경제사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소비절약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각종 매체와 공익광고로 소비절약을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침체의 주범이 개개국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항상 책임을 지고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것은 국민이다. 물론 경기가 나쁘니까 지출과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자는 것은 당연하다. 경기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지출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사태가 나빠지기 이전에 미리 대비하지 못하다가 나빠지면 당황하는 데에 있다. 즉 우리의 소비절약운동은 일시적이지 못하고 상황적이다. 따라서 소비절약운동의 방안도 철저적이고 진부하다. 그 이유는 근검절약의 근본 정신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밖에 말하지 않을 수 없다. 80년대 새마을운동이 한창일 때, 당시의 대통령은 '소비가 미덕이 되는 시대'를 약속했고, 그후 우리는 모두 미친 듯이 소비에 열중해 왔다. 그리고 이제서야 그 어리석음을 조금은 인식하게 된 것 같다. 소비절약을 해야 하는 이유는, 자원의 절약 또는 정부상의 수지균형을 맞추는 경제적인 의미 때문만이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윤리적 도덕적 반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경제살을 주장한 중국 고대의 사상이 묵자(墨子)는 경제, 즉 무차별적인 사람의 실천방안으로서 절정(節用)을 제안하였다. 육친에 대한 정을 참으면 서까지 검소한 장례식을 치루어야 한다는 주장은, 바로 살아있는 이웃의 고통에 대한 배려 때문이었다. 근검절약은 스스로의 경제적인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만, 나 개인을 위한 소비를 줄여서 그 남는 것을 이웃을 위해 쓴다는 자기희생을 실천하는 정신이 더욱 중요하다. 그 결과와 사회 전체를 위한 하는 길이 되고 결국 전체의 안정 속에 나도 안전해진다는 생각이다.

우리 사회에서 구성원간의 위화감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말로는 가진자들의 '내돈 내가 쓰는데 말이 많다'를 꼽을 수 있다. 한보 정태수 회장이 그런 말을 했다. 백보 양보해서 경기가 좋을 때에는 참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불경기에 대비한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용서하기 어렵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소득의 불균형은 단장은 어쩔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소득의 불균형이 각자의 개인적인 능력과 노력의 차이 외에도 불평등한 사회구조에서도 온다는 점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내돈 내가 쓴다는 생각을 고치지 못하는 계층이 있는 한, '현대의 소외'는 더욱 깊어져 자기희생에 바탕을 두는 진정한 소비절약운동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이와함께, 가진자들의 책임으로 떠맡겨거나, 단순히 자원절약 또는 수지타산만을 목표로 하는 차원의 절약운동에서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의미의 소비절약운동으로 승화시켜야만, 절약의 생활화가 가능해지고 그 위에서 우리의 경제도 건설될 것이다.

## 동국만평

고대성



## 금융실명제, 경제위기 주범으로 오명 보완책으로 실명제 본질 훼손되지 말아야

1993년 8월 12일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해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어 약 3년반이 지난 오늘까지 금융실명제의 정착과 관련하여 성공여부와 보완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 되어왔다. 주로 기업인과 정치권은 현행 금융실명제가 그 내용이 지나치게 강하므로 상당수 준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반면 전문가들은 현행 금융실명제가 내용상 허점이 상당히 많으므로 좀더 강하게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김영삼 대통령 개혁의 상징물로 되어 손을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금융실명제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조치들이 진행돼오던 차에 강경식 경제부총리가 취임일성으로 금융실명제 완화를 주장했고 보완책을 발표했다.

강경식 경제부총리는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최근의 경제가 성장둔화 및 국제수지 적자의 확대라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과소비가 조장되고

저축이 감소되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하자금의 양성화를 통해 산업자금으로 끌어들이는 금융실명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과연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경제가 어려워진 것일까? 1993년 8월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 일시적으로 증권시장이 충격받은 후 회복이 되었으며 금융시장은 안정되었다. 1995년까지 우리 경제는 실명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경기위축을 겪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했다.

그럼 최근의 경제위기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첫째는 경기순환상 불황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둘째, 주요 수출품시장의 불안정과 원화에 대한 일본엔화의 상대적 평가절하로 인한 수출부진이다. 셋째, 저효율·고비용으로 집약되는 우리경제의 경쟁력 약화이다. 넷째, 한보와 삼미그룹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로비형 기업경영과

권력형 비리 및 정경유착에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경제 위기는 금융실명제 실시에서 비롯되었다기 보다는 금융실명제가 보다 더 일찍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시장질서의 왜곡으로 초래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정부에서 금융실명제 보완의 필요성으로 제기하는 부분은 근거가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제를 완화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금융실명제 실시후 실명화되지 않은 돈은 어떠한 것인가? 왜 밝히기를 꺼려하는가? 실명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금융자산가액의 60%까지의 과징금을 물리고 이자의 96.75%를 세금으로 징수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명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돈의 주인들이 이름을 밝히면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관련된 돈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돈을 이름을 밝히지 않

고 제도권으로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실명제보완 방안은 실명제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요소를 담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납세자가 금융소득에 대한 40%의 원천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소득과세에 관련한 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지는 않지만 국세청의 종합적인 세원관리가 어려워지고 특히 상속·증여세의 탈루가 용이해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분리과세는 차명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부정

한 자금이 아무런 제도적 감시나 심리적 제약도 받지 않고 금융망을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다. 실명제 발전을 위한 과제중 하나가 차명거래의 억제인데도 차명거래의 문을 더욱 넓혀준다면 실명제를 하지 말자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하자금을 양성화시켜 중소기업자금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실용성이 전혀 없다. 대부분이 차명으로 운용되는 사채시장 자금과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실명미전환 자금은 이미 산업자금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다시 산업자금화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중소기업 출자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는 것은 불법사속의 길을 터 줄뿐, 지하자금을 세금내는 깨끗한 돈으로 전환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그것은 이미 현행 실명제 하에서도 차명거래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실명미전환 자금의 양성화와 자금출처조사 면제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미래지향이라는 명분아래 실명미전환 예금에 대한 과징금을 낮추고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되도록 열어 준다면 지금까지 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을 충실히 지킨 사람과의 형평이 무너진다.

따라서 지하자금을 산업자금화하고 진정한 산업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실명제는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통하는 모든 차명거래를 불법화하고, 위반시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거래자도 엄한 벌을 받게 하여 금융실명제를 완성할 수 있다. 아울러 돈세탁방지법과 정치자금법, 공직자윤리법 등의 재개정을 통해 우리사회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척결하여 투명한 사회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박기영 (경실련 정책연구부장)

## 큰 사람은 큰 일터를 찾습니다

### 남·여 대졸신입사원모집

1. 모집부서 및 인원 (총 1,020명)

- 이 공 계 (710명):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건축공학, 토목공학, 화학공학, 산업공학, 전산학, 수학, 물리학
- 인문사회계 (310명): 전학과

2. 응시자격

- 정규 4년제 대학 모집 해당학과 및 편입학과 전공자로서 97년 8월 졸업예정자 또는 97년 2월 졸업자 (97년 7월말 이전 전역 예정장교 포함)
- 1969년 1월1일 (석사: 1967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해외 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3.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 및 신체검사 (1차 합격자에 한함)

### 4.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당첨률 소정양식) 1통
- 성적증명서 및 각종 증명서류는 면접시 제출

###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1997년 4월7일(월) ~ 4월12일(토) 매일 오전 9시 ~ 오후 5시
- 교부처 (지방은 현대자동차서비스 각 지점)
-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현대인재개발원 (비밀번호 현대인재개발원) 02)746-3232~4
- 부산 중구 중앙동 47-80-1 051)466-4403
- 대구 서구 현대2동 609 053)353-4370-1
- 광주 서구 농성동 415-12 062)368-3211

대전 동구 성남동 509-2 042)627-9070-1  
전주 완산구 경원동 3가 73-1 0652)85-5001-2  
청주 흥덕구 비하동 323 0431)232-3281-3  
춘천 호서1동 685 0361)52-4706-8  
강릉 옥천동 159 0391)43-3390-3

접수처: 현대인재개발원 (비밀번호 현대인재개발원) 지하3호선 안국역 하차

### 6. 기타

- 육·해·공군장교 출신자는 우대합니다.
- 우원접수는 등기우편으로 마감 다음날 도착분까지 유효합니다.
- 현역 군복무중인 자는 97년 7월말 이전 전역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는 관례에 의해 우대합니다.
- 신체장애를 이유로 전형 과정 불응정한 경우를 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746-3232~4)에 문의하십시오.

인터넷을 통한 채용서비스: <http://www.hyundai.net>  
(교부접수기간중 지점 On-Line 접수 및 채용정보 제공)

●모집회사: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현대중도, 현대중합성사, 현대자동차서비스, 현대선선, 현대산업개발, 현대중합목재, 고려산업개발, 현대중도메이커, 현대정보기술, 현대중기산업, 현대중도, 금강개발산업, 현대중도메이커, 현대우주항공, 현대합부금, 현대미디어시스템, 현대물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일자: 1997년 5월 10일(토)
- ARS: 02)700-1913
- 인터넷: <http://www.hyundai.net>

## 남·여 대졸신입사원모집

1. 모집부서 및 인원 (총 1,020명)

- 이 공 계 (710명):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건축공학, 토목공학, 화학공학, 산업공학, 전산학, 수학, 물리학
- 인문사회계 (310명): 전학과

2. 응시자격

- 정규 4년제 대학 모집 해당학과 및 편입학과 전공자로서 97년 8월 졸업예정자 또는 97년 2월 졸업자 (97년 7월말 이전 전역 예정장교 포함)
- 1969년 1월1일 (석사: 1967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해외 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3.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 및 신체검사 (1차 합격자에 한함)

### 4.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당첨률 소정양식) 1통
- 성적증명서 및 각종 증명서류는 면접시 제출

###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1997년 4월7일(월) ~ 4월12일(토) 매일 오전 9시 ~ 오후 5시
- 교부처 (지방은 현대자동차서비스 각 지점)
-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현대인재개발원 (비밀번호 현대인재개발원) 02)746-3232~4
- 부산 중구 중앙동 47-80-1 051)466-4403
- 대구 서구 현대2동 609 053)353-4370-1
- 광주 서구 농성동 415-12 062)368-3211

대전 동구 성남동 509-2 042)627-9070-1  
전주 완산구 경원동 3가 73-1 0652)85-5001-2  
청주 흥덕구 비하동 323 0431)232-3281-3  
춘천 호서1동 685 0361)52-4706-8  
강릉 옥천동 159 0391)43-3390-3

접수처: 현대인재개발원 (비밀번호 현대인재개발원) 지하3호선 안국역 하차)

### 6. 기타

- 육·해·공군장교 출신자는 우대합니다.
- 우원접수는 등기우편으로 마감 다음날 도착분까지 유효합니다.
- 현역 군복무중인 자는 97년 7월말 이전 전역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는 관례에 의해 우대합니다.
- 신체장애를 이유로 전형 과정 불응정한 경우를 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746-3232~4)에 문의하십시오.

인터넷을 통한 채용서비스: <http://www.hyundai.net>  
(교부접수기간중 지점 On-Line 접수 및 채용정보 제공)

●모집회사: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현대중도, 현대중합성사, 현대자동차서비스, 현대선선, 현대산업개발, 현대중합목재, 고려산업개발, 현대중도메이커, 현대정보기술, 현대중기산업, 현대중도, 금강개발산업, 현대중도메이커, 현대우주항공, 현대합부금, 현대미디어시스템, 현대물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일자: 1997년 5월 10일(토)
- ARS: 02)700-1913
- 인터넷: <http://www.hyundai.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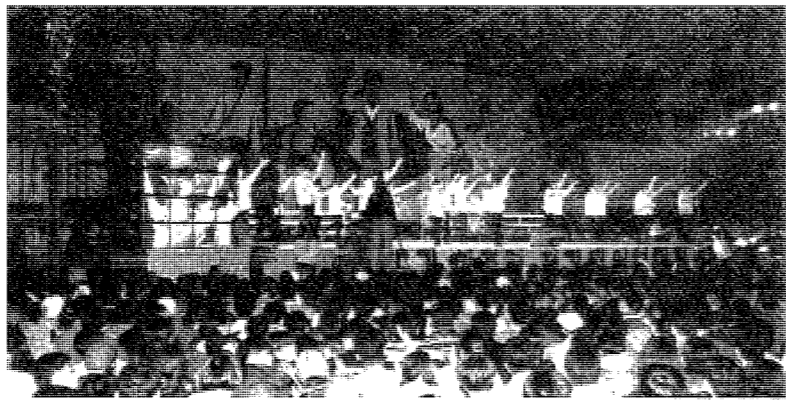
◇5기 한총련 대의원대회

민중연대에 관심영역 확장 - 대국민 신뢰회복에 주력  
5기 의장에 강위원 전남대 학생회장 피선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전남대에서 열린 한총련대의원대회(이하·대대회)는 현재 학생운동의 위기를 진단하고, 과학적인 정세 인식에 기반한 대중투쟁에 대한 방향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자리로, 1천 5백여명의 대의원들과 1천여명의 참관인이 참가한 가운데 한총련 5기 의장을 선출하고 이어 1년 사업계획인 총노선 을 토론·확정했다.

전대협-한총련 10년 역사상 두번째로 경선으로 치러진 의장선출은 강위원(전남대 총학생회장)군, 백태현(부산대 총학생회장)군, 지현찬(고려대 총학생회장)군이 입후보했다. 4일 저녁 전체 대의원 정족수 1천6백 13명 중 출석 인원 1천45명이 참여한 가운데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는 인시외장을 맡았던 강위원이 8백50표를 얻어 81.3%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3명의 후보가 입후보해 학생운동의 분열이라는 일부 여론과는 달리 입후보한 세후보 모두 '한총련의 통근 단결 속에서 개혁'을 결의하여 비록 사상과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한총련 내에서의 논의를 통해 발전을 생각하는 모범적인 정형을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총련은 △한총련의 입문과 자체 조정세 및 대중투쟁 △한총련의 혁신강화를 위하여 △(상반기)대중운동의 흐름 및 계획 △각국, 위원회 별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총노선을 통해 '한국학생운동의 자존을 되찾아, 전민항쟁을 통한 김영삼정권 조기타도와 연대항쟁 정신으로 한총련의 변화



와 혁신을 이룩하자'는 사업방향을 결정했다. 이 총노선 논의상에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번 대대회에서 한총련의 대선방침을 결정해야 한다'는 대의원들의 의견이 제안되어 장시간동안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박정운 경희대 총학생회장은 '한총련은 대선 정책에 있어 민족민주운동선열의 합의 따른다는 내용을 첨부할 것을 제안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였다. 김영찬군은 찬반토론에서 "지금 대선논의를 한다는 것은 민민운의 분열을 촉진할 뿐 아니라, 현정세가 긴박하고 유동적이어서 무의미하다"며 "대선자체의 논의보다는 대중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내용

으로 수정동의안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 수정동의안은 찬성 2백45, 반대 5백0명으로 부결되었다. 통일운동에 대해서는 '97년 8·15개화에 대한 한총련 입장'을 통해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을 견지하고 남북해외가 함께하는 전민족적 연대를 굳건히 하며 △민족분열을 획책하는 미국과 김영삼정권에 반대하는 투쟁을 기본으로 △민족통일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통일운동을 더욱 대중화, 활성화시키고 △통일운동세력의 통일단결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총련은 현재 학생운동에 대해 위기로 진단을 내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강위원 한총련 의장 기자회견

실천 통한 문제해결 중시할 것  
북 지원에도 구체적 안 마련중



5기 한총련 의장으로 당선된 강위원 전남대 총학생회장의 기자회견이 지난 5일 전남대 제1학생회관에서 있었다. '97년 한총련이 나아갈 핵심과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외연의 확대도 지금까지 있어왔던 대중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운동해 나갈 것이다. 둘째는 내부조직의 강화 단결이다. 지금 한총련에는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다양한 견해를 한데로 수렴하여 통일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 =연대항쟁 이후 폭력 한총련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학우들은 연대항쟁에 대해 이분적 평가를 해왔다. 한쪽은 좌경적 시각으로 성과적 측면에, 또 한쪽은 언론플레이에 의한 패배적 측면에 치우쳤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다. 대중 투쟁방식에서 처음부터 우리가 틀을 던지거나 쇠괴이프를 들지 않는다. 이를 감안한다면 한총련이 정치적 견해를 존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다양한 견해를 한데로 수렴하여 통일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 =당선소감은 =사실 마음이 무겁다. 임시의정부를 하는 동안 용인대 한상근, 조선대 류재우를 열시(최정식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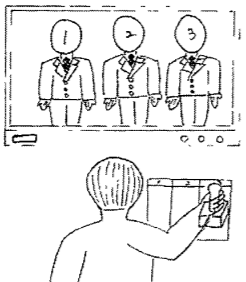
동약로

처음보고

지난 4일 저녁 전남대 체육관에서 한총련 의장 선거가 시작된 가운데 3명의 후보자들의 유세가 진행되고 있다.

"자신의 묘비명에 새기고 싶은 말" 등 몇가지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된 영상물 상영이 있고 바로 뒤 각 후보의 기치를 잘 나타내는 듯한 노래, 백태현 '열의 노동자', 지현찬 '비위처럼', 강위원 '조국위한 삶이 아름답지 않은가'가 문선과 함께 보여진다. 그 뒤 각 후보자들이 짧막하게 직접유세를 한다. "노동자 계급의 독자적 정치 세력화를 만들 것이다" "노동자 민중의 정치 세력화와 함께 한총련을 대중조직으로 이체하는 다르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5기 한총련을 백만 학우의 상징으로 만들겠다는 발언을 통해 자신들이 한총련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포부를 읽을 수 있다. 1시간도 채 못돼 유세는 끝이다.

한총련 임시 의장을 지내며 언론매체에 얼굴이 많이 알려진 강위원 임시의정장은 잘 알려진 만큼 후보 유세전에 잠시 참관인에게 있다가 학생들 눈에 띄어 측근에서 악수나 싸인을 해주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기



만 다른 두 후보들은 생소한 인물인 듯하다. 유세가 끝남과 동시에 투표가 시작된다. 80%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강위원 후보가 당선 됐다. 의장 음립식에서 의장은 87년 전 대회에서 이어온 '10년 한총련'에서 과거에 보던 비장감이나 무게감 대신에 스프레이와 꽃가루 세례와 함께 축하를 받았다.

학생운동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주축이 될 한총련 의장이 결정되는 의장선거에서 과연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이 후보자들의 자질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나 기회가 얼마나 주어지는 것일까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단과대 학생회장까지 아우르는 모임은 1년에 한번 대회뿐이다. 상층 회의에 참가하지 못하는 대의원들은 선거 전 각 학교에 배포된 포스터와 선거 자료집, 그리고 대회에서의 1시간 가량의 유세를 통해서 후회없는 대표자를 선택할까?

(최정식 기자)

취재박수

수면투쟁 진압

○...4일부터 연이은 전야제, 한총련 의장선거, 총노선 토론 등의 대대회 일정은 계속되는 밤샘과 불면한 잠자리 등으로 대의원들을 지치게 했는데...

이에 1천 5백여명의 대의원들이 일어서서 회의를 진행하는 진중경이 벌어지기도. 이는 회의 도중 틈틈히 '졸지말십다' '자고 있는 대의원들은 일어나도록 합시다'라며 회의를 진행시키던 의장이 대의원들의 수면투쟁(?)을 대대적으로 진압했기 때문.

중간에 "이제 졸지않고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앉지도 않겠다"고 했지만 2/3이 넘는 대의원이 그대로 서 있어 졸음에 겨워하는 안쓰러움과 함께 졸지 않으려는 굳은 의지 보여 참관인들 감동했다고.

특별수업

○...대대회에 참가한 대의원을 비롯한 참관인들은 뜻밖의 우리말 교육을 받게 됐다는데.

이는 극문과 출신 강위원 의장의 실력이 유감없이 발휘된 덕분이라고. 그 예로 제5기가 아닌 5기 한총련 대의원 대회는 일본식 표현이라 하여 바로 잡혀진 것이라는 설명.

총노선 발제 중 "페이지"를 사용한 중앙 상임위원은 "쪽이라 써 우리말을 사용하라고 지적하고 "쪽발린다. 낱말 쪼갬다. 이런 말은 쓰지 마세요. 앞으로"라며 자상하게 훈시하기도.

게다가 '과' 학생회는 '과학성회로 발음할 것을 요구해 과학성회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인상을 주는데 일조했다.

사회단신

서총련 의장 장전섭군 당선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이하 서총련) 대의원 대회가 서울 40개 대학 대의원 3백61명중 2백7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3월 22.23일 총액대 의원관 세미나실에서 있었다.

이번 대의원 대회에서는 사전행사, 본대회 상의 대의원들이 그대로 서 있어 졸음에 겨워하는 안쓰러움과 함께 졸지 않으려는 굳은 의지 보여 참관인들 감동했다고.

서남총련 의장 이지용군 당선

지난 3월 31일 중앙대에서 열린 서남총련 의장선거에서 이지용 중앙대 총학생회장이 당선됐다.

한편 이번 선거에는 본교 총학생회장인 구정우군도 경선으로 출마했다.

죽음이 의미없는 시대, 언론이 만든다

이제는 집회하다 죽어도 '뉴스가 되지 않는다. 지난 3월20일 광주전남지역 총학생회연합(이하 남총련) 집회도중 조선훈 류재우(영정 2)군이 사망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지 궁금하다.

대학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학교 곳곳에 붙은 대자보와 분량소가 설치된 것을 보고 이 사건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대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오랜만에 학교를 찾은 한 졸업생은 "류재우가 누구야?"라며 후배들을 물었고 묻는다.

자신 이따금 똑같은 일이 있었다. 86년 3월 29일 교육재정 확보 관련 집회에서 사망한 연세대 노수석(영2) 군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이때는 상황이 달랐다. 3월 말, 4월 초를 전후로 각 언론사에서 당시 집회상황과 부검 결과에 대한 언급을 했었다.

그러나 97년에는 입을 꼭 다물고 있다. 사건이 일어난 지방 이외에서는 그 소식을 접하기 힘들다. 지난 3월21일자 한겨레 신문 사회면에 1백30여자 정도의 짧은 기사도 보도된 것 뿐이다. 그러나 류재우 학생이 행사 기동대의 돌격과 최후탄이 난사되고, 부석전이 전개되는 상황 도중 쓰러진 것을 경찰과 총돌하기 이전에 쓰러진 것으로 보도됐다. 이렇듯 제대로 된 보도가 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현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작업을 진행중인 '해국학생 고 류재우 대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지금 같은 대선 정국에서 특

회할 수 없는 상황이며, 집권당기 정권 안정화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상황적 특수성을 내세웠다.

이 사건이 언론의 침묵으로 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리진 않지만 한겨레에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 3월25일 광주지역 시민, 사회단체의 입장을 밝힌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고 류재우 학생의 죽음이 시위와 무관하다는 경찰의 발표는 완전 날조이다 △죽음의 원인은 경찰의 과잉폭력진압에 있다 △정권은 부검문제가 사건 해결의 열쇠인 것처럼 호도하며 과잉폭력진압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진실 규명, 책임자 처벌및 학생들의 평화시위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29일에는 전국연합 주최로 종로에서 집회가 열렸다.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노수석 군이 사망한 지 1년이 지나는 동안 사망관련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학생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에 의의를 둔 집회였다. 또한 조선훈대에서는 임시 전체 학생대표자 대회를 갖고 부검을 아무리 한다해도 '실정'이라는 결론에 이른다면 진실이 알려질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각 언론사 항의전화, 아이전화 능력, 모금운동으로 신문 전판광고 게재 등의 활동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움직임들을 보며 앞으로는 집회보다 죽는 일이 뉴스가치 판단의 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아예 없어야 할 것이다. (고지은 기자)

Advertisement for LG Chemical.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woman's face and a man's face. Text includes: '정경영·초우량 LG', '화학의 목표는 인간입니다', '더 아름다운 인간의 삶, 더 잘사는 나라, 화학의 힘으로 만들겠습니다', and 'LG화학' logo.

Advertisement for LG Chemical.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woman's face and a man's face. Text includes: '50주년', '화학강국이 미래강국', '첨단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한 오늘날에도 모든 산업의 핵심기술은 화학- 화학이 앞선 나라가 미래의 새로운 강국이 됩니다. 우리 나라를 21세기 화학강국으로! LG화학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파이오텍', '정보전자소재', '석유화학', '정밀화학', '생활화학', and 'LG화학·LG석유화학·LG실트론·LG엘라이드시그널·LG오앤스코닝·LG MMA'.

학생생활연구소(소장=고진호·교육학)는 '97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 신입생 2천5백87명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여기에는 '97학번들의 학교에 대한 인식도, 교육개혁에 관한 생각, 본교 지원 동기 등이 나타나 있어 소개해 본다. <편집자>

◇ 97학년도 신입생 설문조사 결과

# 응답자 44.8% “본교 입학 자랑스럽다”

## 지원에 영향 준 복수 전공 제도 83.7%가 호감... 외국어·컴퓨터에 관심

### 1. 대학진학의 이유

진로 및 취업이 다수

대학에 진학한 가장 큰 이유는 진로 및 취업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진학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진로 및 취업 때문이라는 응답이 51.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문 탐구가 30.5%, 교양 습득이라는 응답이 13.4%였으며, 명예를 획득하기 위해 진학했다는 학생은 4.7%에 지나지 않았다. 취업을 위해 진학했다는 학생의 비율은 서울이 51.0%, 경주가 52.1%로 비슷했으나, 학문탐구를 위해 진학했다는 학생은 서울이 34.8%로 경주의 22.8%보다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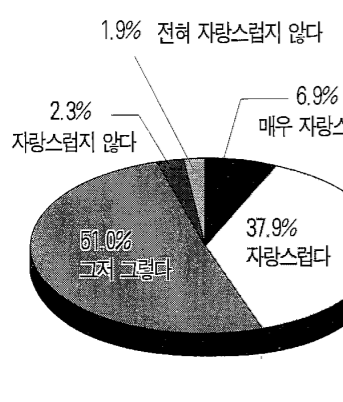
### 2. 입학후 습득하고 싶은 분야

외국어·컴퓨터 선호

진로와 취업을 위해 대학에 진학했다는 학생의 비율이 가장 많기는 했으나 일반적으로 대학에 진학한 후 학생들의 관심분야는 외국어 습득(33.2%)과 컴퓨터(23.8%), 레저 및 스포츠(16.4%)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관심분야는 서울과 경주에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최근의 세계화 추세와 정보화 사회 도래에 대한 예견 등이 대학생들의 관심을 유인하는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3. 본교입학에 대한 소감

대체로 만족



본교입학에 대해서 44.8%가 자랑스럽다고 응답한 반면, 4.2%만이 자랑스럽지 않다고 응답해 과반수에 가까운 신입생들이 본교입학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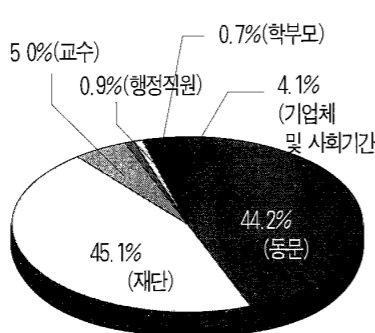
### 4. 본교 입학행위의 출신고 학업성적수준

상위 10% 이내일 것

본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고등학교 성적수준에 관한 질문에서 상위 5% 이내 학생들일 것이라는 응답이 3.9%, 10% 이내일 것이라는 응답이 33.9%로 본교에 입학하려면 최소한 고등학교때 성적이 상위 10% 이내일 것이라는 응답이 37.8%였다.

### 5. 학교발전의 역할집단

재단·동문의 역할 중요



학교발전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할 집단으로는 45.1%가 재단이라고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44.2%가 동문이라는 응답을 보여 재단과 동문에 대한 높은 기대를 보여주었다. 반면 교수(5.0%), 기업체 및 사회기관(4.1%), 행정직원(0.9%), 학부(0.7%)라는 항목에는 매우 낮은 응답을 보였다. 특히 이 항목에는 서울과 경주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서울캠퍼스의 경우는 학교발전의 역할집단으로서 동문 51.1%, 재단 38.8%의 응답을 보였으나, 경주에서는 재단이라는 응답이 57.1%로 가장 많았고 동문이라는 응답은 31.3%였다.

### 6. 외부에서본 본교의 변화 평가

발전정도 긍정적

최근 2-3년간 본교의 변화정도에 대해서는 4.0%가 매우 발전적인 변화가, 39.1%는 발전적인 변화가 있다고 응답해 43.1%에 달하는 학생이 본교의 발전정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체되어 있다는 응답은 14.9%에 불과해 신입생들은 최근 급변하는 대학환경 속에서 본교가 대학교육 발전을 위한 조치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교의 발전적 변화에 대한 인식도는 서울에서 49.5%로

경주의 31.6%보다 높았다.

### 7. 본교에 관한 정보획득원

입시용 홍보책자 통해

본교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된 정보매체를 묻는 질문에 61.8%가 본교의 입시용 홍보책자라고 응답했으며, 17.0%가 선배나 교수의 방문, 12.0%가 상업용 대학소개 책자라고 응답해 본교의 입시용 홍보책자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문광고나 TV매체라는 응답은 각각 4.5%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 8. 본교지원의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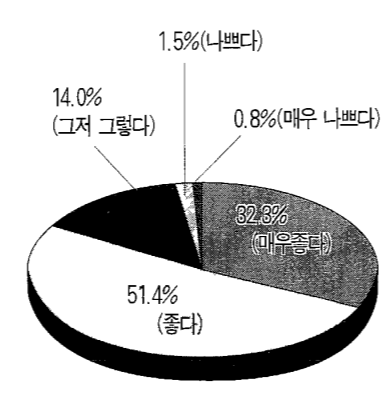
홍보책자, 가족 등의 영향

본교를 지원하는데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한 것은 23.5%의 응답을 보인 가족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입시용 홍보책자가 28.4%, 담임교사 18.4%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는 입시용 홍보책자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34.6%가 입시용 홍보책자라는 응답을 했고, 가족 24.4%, 담임교사 18.8%의 응답을 보였다. 반면 경주는 가족이라는 응답이 38.7%, 입시용 홍보책자와 담임교사라는 응답이 각각 17.5%로 가족의 역할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입시홍보에서 큰 역할을 한 홍보책자가 본교입학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의 홍보 및 정보제공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 9. 복수전공에 대한 의견

83.7% 긍정적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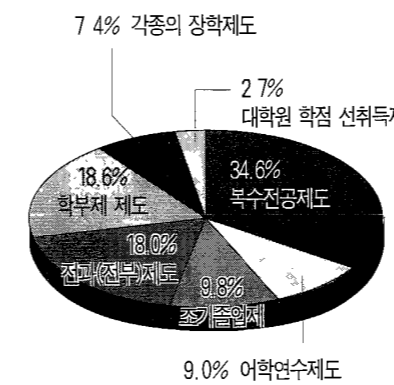
본교의 복수전공제도에 대해서는 32.3%가 매우 좋다, 51.4%가 좋다고 응답해 83.7%의 학생이 복수전공제도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쁘다라는 부정

적인 응답은 2.3%로 매우 적었다. 복수전공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서울에서 경주보다 높게 나왔는데, 서울이 88.4%, 경주가 75.1%였다.

### 10. 본교지원에 영향을 준 교육제도

복수전공에 가장 호감

본교는 '96년 교육부가 주관하여 실시한 대학교육개혁 실적평가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다. 본교의 새로운 제도들이 신입생들의 본교지원에 끼친 실질적인 영향을 조사한 결과 신입생의 34.6%가 복수전공제도, 18.6%가 학부제 제도, 18.0%가 전과(전부)제도 때문에 본교를 지원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여, 본교가 최근 단행한 새로운 교육제도들이 본교지원에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1. 내신성적 산정요소

교과성적 반영률 중요

내신성적 산정시 많이 반영되어야 할 요소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할 요소로 교과성적 55.7%, 출결상황 15.1%, 행동발달상황 14.1%, 특별활동 및 봉사활동이 각각 7.6%의 응답을 보여 아직도 교과성적을 매우 중요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과성적을 내신산정에서 많이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은 서울에서 64.2%로 매우 높았으며, 경주에서는 40.5%의 응답을 보였다. 한편 출결상황이나, 행동발달상황의 반영비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한 조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2. 입시일자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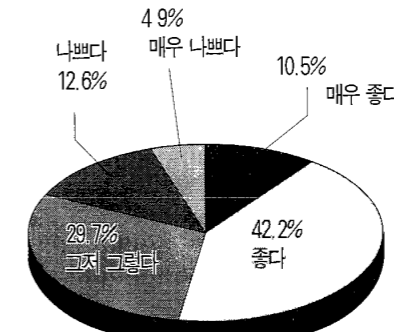
45%가 유리

금학년도 입시일자가 동국대학교 선택에

준 영향을 보면 매우 유리하게 작용했다 7.2%, 유리하게 작용했다 37.9%로 45.0%의 학생이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응답은 12.5%에 불과했다.

### 13. 학부제에 대한 의견

59.6% 좋다



학부단위 모집제도에 대해서도 매우 좋다 10.5%, 좋다 42.2%로 52.7%의 학생이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반면 부정적 응답은 17.5%로 나타났다. 복수전공제도와 마찬가지로 학부제에 호감을 갖고 있는 학생의 비율은 서울에서 높게 나왔다. 즉, 학부제가 좋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서울이 59.6%인 반면 경주는 40.2%였다.

### 14. 논술고사 실시

보원책 모색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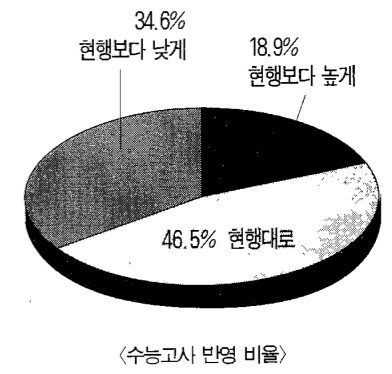
논술고사 실시에 대한 의견(현재 본교는 실시하지 않고 있음)을 보면 41.0%는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으며, 59.0%는 논술고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응답해 현재도에 대한 동의의사가 높기는 했으나,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도 41.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논술고사의 장단점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를 통하여 보완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논술고사의 실시를 선호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서울에서 더 높게 나타나 44.1%였으며, 경주는 35.4%의 학생이 논술고사의 실시에 대해 찬성하였다.

### 15. 정시입학 사정시 수능성적, 내신성적, 면접점수 반영비율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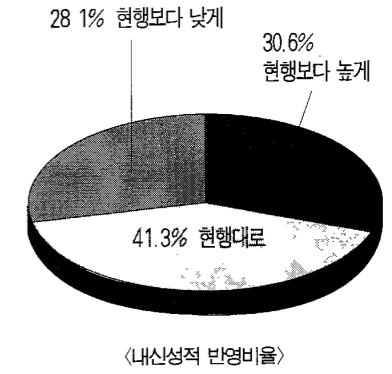
내신 반영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 많아

입학사정시 반영되는 요소로 수능성적, 내신성적, 면접(일부 학부에만 해당)점수가 있

는데 이들 각 요소의 반영비율에 대한 의견을 설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능고사 반영 비율)



(내신성적 반영비율)

첫째, 수능성적의 반영비율에 대해서는 더 높여야 한다 18.9%,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다 46.5%, 낮춰야 한다 34.6%로 반영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보다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내신성적의 반영비율은 높여야 한다 30.6%, 현행대로 41.3%, 낮춰야 한다 28.1%로 낮춰야 한다는 응답보다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리고 면접성적의 반영비율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2.1%로 과반수를 넘고 있으며, 높여야 한다 20.4%, 낮춰야 한다 27.5%로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입학전형시 반영되는 요소들에 대한 의견은 서울과 경주에서 모두 현행제도에 대한 찬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영비율의 확대 축소 의견을 비교할 경우 수능 성적 반영비율 및 면접성적 반영비율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낮게 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내신성적 반영비율은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학생생활연구소)

### 에너지와 정보통신의 선경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선경이 사람을 뿔고 키우는 방식입니다.

요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사람 참 많습니다. 인터넷, 배낭여행, 편익점, 그리고 도서관과 실험실에서 밤을 밝히는 사람들. 하지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하면 역시 011. 우리나라 정보통신의 미래 - SK Telecom과 에너지·화학의 대표기업 유공이아말로 정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세계 최초로 CDMA를 상용화하여 우리나라를 통신기술 선진국으로 만들고 국가경제의 동맥인 에너지를 50% 이상 공급하는 사람들. 에너지와 정보통신의 NO.1 기업이 바로 선경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선경그룹에 지원하는데도 때와 장소를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완전공개, 상시체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신입사원 해외연수, 지역전문가제도, 장기해외 연수프로그램, 미국경영대학원과정 등 선경의 인재양성 또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원이 나라, 그 사람을 키우는 선경

선경채용상담실 02) 728-0222, 0212 서울특별시 중구로 27-36-1 선경빌딩 1층 Internet: 서울 Homepage: http://www.sk.co.kr/

SUNKYONG 선경그룹



'97 문화유산의 해

전통문화와 현대미술로 어우러진 인사동 문화의 거리  
조선시대 도화원 · 일제시대 3·1운동 중심지에서 현대 실험미술 근거지로

도시 빌딩 숲 사이로 전통문화와 현대미술이 어우러져 독특한 문화지역을 형성한 거리가 있다. 백백히 늘어선 전통 공예품상, 고미술상, 화랑, 골동품상, 고서점, 전통잡화, 온갖 잡동사니를 파는 좌판을 우리는 인사동에 가면 쉽게 만날 수 있다.

인사동 거리는 역사와 함께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율곡 이이 생가와 박영효·민영환의 유적, 탐골·파고다 공원 등 3·1 운동의 근원지 등의 역사를 묵묵히 담고 있다. 인사동의 유래를 살펴보면 여러 개의 자연 부락으로된 대사동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옛정동·사동의 이름으로도 불려졌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도화원이 위치해 미술활동의 중심지가 되었고 일제시대에는 3·1운동의 중심지로서 열사들의 혼이 아직까지 골목골목마다 깃들여 있는 곳이다. 일제말부터는 골동품 상가가 형성돼 성시를 이루었고 아직까지 전통공예품들을 만날 수 있는 독특한

우리의 거리이다.

인사동 거리의 자랑은 뛰어나니 해도 화랑이 밀집해 있다는 것이다. 청담동이나 강남의 화랑들과는 다르게 젊은 신예작가나 미래세대의 실험성 짙은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과거 20~40년대 미술가들의 등용문이자 활동무대로 자리매김 했던 것이 현재까지 지속되는 것을 보면 앞으로는 좋은 작가의 발굴·육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가 볼만한 화랑 몇 군데를 소개하자면 총 1백50명 이상 1, 2층이 모두 화랑인 인사갤러리, 작가들의 소품이나 소그를 활동의 작품전을 가질 수 있는 곳으로 알려진 관훈갤러리, 1백평 전시장을 2층부터 5층까지 층마다 특색있는 공간으로 꾸민 덕원갤러리, 현대적 시스템으로 새로운 미술시장을 개척하는 조형갤러리 등 격조높고 나름대로의 색깔을 지닌 갤러리들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자랑거리는 우리 전통차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이다. 찻집마다 옛 멋을 한껏

살린 장식물, 향형색색 맛과 색을 겸비한 전통차 이것만으로는 노년층이 고객으로 주류를 이룰 것 같지만 젊은층에게도 색다른 호응을 얻고 있다. 전통적 맛이 있는 '내 남편은 나뭇꾼', 10여년간 전통차의 진수를 자랑해온 '나눔의 기쁨', 실내에서 물 흐르는 소리와 새소리를 들으며 따뜻한 전통차를 마실 수 있는 '달새' 등 전통차집도 인사동의 문화를 말해준다.

또한 인사동 거리에는 유난히도 문화단체가 많이 있는데 한국고미술협회, 미술협회, 화랑협회, 조형협회, 전통문화보존회 등이다. 그들이 있기에 인사동거리의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고 한국문화 주춧돌의 몫을 해나가고 있다.

문화의 거리를 더욱더 빛내기 위해서 오는 13일부터 '일요일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한다. 문화장터도 열리고 노상 예술공연이 벌어질 계획이니 답답한 도시 생활에서 조금이나마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될 듯하다. 그 외에도 문화유

'97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해 민족의 얼 문화 유산을 알고 가꾸자'는 취지에서 '문화유산시리즈'를 4회에 걸쳐 연재한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란다

1.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2. 손실된 문화재와 그 실태
3. 문화의 거리 인사동을 돌아본다.
4. 경주의 무형문화재를 찾아보며

(편집자)

달 하나 천 강에

장인정신



독일에서 유학하던 시절이었다. 원래 채식이 좋아하는 편이지만 육식이 채식보다 싸게 먹히는 나라에 살다보니 주머니가 가벼운 나로서는 정육점을 자주 드는 수 밖에 없었다. 나는 주로 동네 정육점을 이용했는데, 이 정육점의 주인은 예순을 조금 넘은 듯한 노부부였다. 내가 이 정육점을 자주 찾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들 부부가 항상 명랑하고 친절했기 때문이었다. 그 편이 아니었다 이들의 얼굴에는 세상을 알차고 만족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여유가 담겨 있었다.

어느날 나는 주인에게 물었다. 당신네들은 현 직업에 만족하십니까? 순간, 미소를 머금고 있던 주인 내외의 두 눈이 갑자기 휘둥그레졌다. 이상한 질문도 다 있다는 어투로 물어보지 마셨습니까. 무슨 말씀이요? 난 내 직업에 백프로 만족해요. 난 이 직업이 자랑스럽습니다. 난 이 직업에서 마이스터(달인)요. 나보다 고기를 더 잘 썰고 나보다 고기의 짐을 더 잘 구별해 낼 줄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어깨를 으쓱해보이는 노인네 몸통에서 나는 자부심에 가득찬 한 장인의 모습을 보았다. 그 순간 내게는 야! 그래서 이 노부부의 얼굴에 항상 민족의 미소가 끊이지 않았던 거로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다.

독일인의 정직성과 부는 비로 이러한 장인정신,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으로부터 나온 결과물이다. 세계 제일의 자동차 메르세데스 벤츠, 10년을 넘게 타고 새 차와 같은 성능을 유지하는 차, 이 차가 이렇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왕좌(王座)를 유지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 차에는 혼이 배어 있다고 한다. 이 차를 만든 장인들의 무수한 혼들이 말이다. 이 자동차의 중요 부분을 만드는 기술자들은 대부분 대를 이은 사람들, 즉 아버지의 대로부터 기술을 전수 받은 아들들이라고 한다. 대를 이어 기술이 축적된 이들의 손에서 만들어진 차, 이들의 혼이 살아 숨쉬는 자동차, 세계 제일의 자동차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제일주의 하면 우리도 그 어느 나라에 뒤떨어지지 않는다. 교육제일주의 덕분에 우리는 일찍이 문맹국에서 탈피하여, 서구유럽의 문화와 전통을 대표하는 프랑스보다 달팽이속에서 자랐고, 내 이들은 일류가 되어야 한다는 부모들의 끈질긴 욕망이 세계 제일의 고학력 사회를 만들어 냈다. 그러나 제일주의에는 이러한 장점 못지 않게 단점도 있다. 매사에 남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이른바 엘리트주의가 그것이다.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능력의 한계를 무시할 때 우리는 서로를 깔보게 되며, '너보다 못한 놈이 어디있어!'를 외치게 된다. 겸허하게 자기 분야에서 본분을 다할 때, 선생은 가르치는 일에, 학생은 배우는 일에, 택시기사와 식당종업원은 손님접대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 질 때 비로소 진정한 서로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일류인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아쉬운 것은 저 독일인의 장인정신이다.

임 호 일 문과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문화단신

연극이야기

책이야기

◇TV드라마 바로보기, 바로쓰기 ... 지금 텔레비전은 30여개 드라마의 춘추극장이다. 그러나 시청률을 의식한 선정적인 내용이 많아 드라마 바로보기가 필요한 시점. 지금 방송되는 드라마의 실제 집필, 제작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책을 다룬 1부와 극작술에 대해 서술한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장기에 작, 박영를 출판사 퍼냄. 정. 문의(762-0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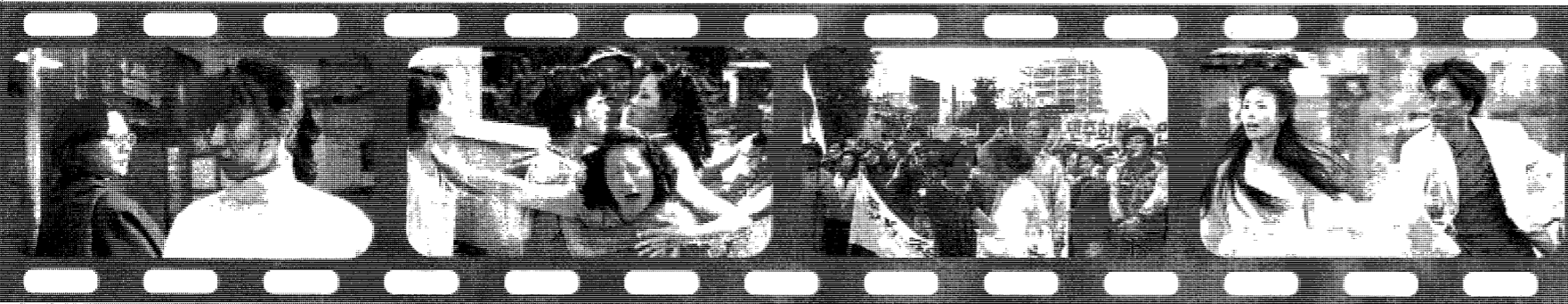
의 (은평구문체)를 홍콩 및 몇 개 아시아 국가에 직접 판매하는 성공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보다 능률적이고 장기적 안목을 가진 영화수출의 방식으로는 민간 주도하에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일종의 '영상수출기구'의 설립을 제안해 볼 수 있겠다. 일의 능률성이나 책임성 등을 고려할 때 주축은 민간인이 해야 효율적인 것이며, 국내 영화계로부터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 국가가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이 이윤배분 등에 관한 의혹을 불식시키고 보다 많은 영화인들의 참여를 얻는 방법이 될 것이다.

한국은 소위 '영화의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고 일각에서는 기대어린 눈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많은 편수의 영화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은 몹시 위험할 수 있다. 우리보다 훨씬 적은 편수의 영화를 만들어 내면서도 (피노노나 (사인)같은 세계적 수준의 영화를 선보이는 호주의 영화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양적인 비대환보다는 질적인 향상에 신경을 써야만 한국의 영화가 보다 넓게 인정 받을 수 있는 길이 트일 것이고 그것이 곧 한국영화의 수출과도 연결되어 부가이익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박 경 희 (국제영화 마케팅 전문가)

한국 영화 4 줄의 현황과 전망



양적증가보다 질적향상 ... 영상수출기구건설 필요  
(301·302)등은 세계배급에 성공

최근 한국영화 제작이 매우 활발해진 것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실이다. 거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영상산업의 막대한 가능성을 느끼거나 잠작하고 여러 대기업들이 앞을 다투어 영화시장에 뛰어들면서 제작비의 수위가 이전보다 용이해진 점이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몇 가지 지적할 만한 점 역시 대두되고 있다. 기업의 속성은 이윤 창출이라, 영화에 있어서도 역시 흥행 수익을 올리는데 가장 안전한 방법만을 원하는 나머지 소재나 형식면에 있어서도 일반 관객에게 쉽게 어필할 수 있는 자극적 대중적인 것만을 취하게 되고, 영화보다도 더 큰 시장인 비디오 시장을 염두에 둔 결과 악히 알려진 소위 '스타급'배우들만을 기용하는데 급급하여 영화의 작품성이나 완성도, 감독의 역할 등을 제대로 가능하게 어려운 어정쩡한 영화물을 양산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한 회사만 연간 적게는 2·3편 많으면 10편에 달하는 영화들을 공동 제작 혹은 전체 제작비 부

담이라는 형태로 만들어내는 기업들, 일년에 전체 개봉되는 수십여편의 영화들 기껏해야 다섯편 내외의 작품들만이 흥행에 성공해서 수익을 거두게 해주는 현실을 감안하고 보면 도저히 국내 관객만으로는 치솟는 제작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방화의 세계시장 진출을 모색해야 할 이유가 발생한다.

현재 방화 수출에 관여하고 있는 영화진흥공사에서는 일년에 각각 한 번씩 열리는 프랑스 칸 영화제와 미국 AFM(아메리칸 필름 마켓)에 부스를 설치해서 국내 영화업자들 대신 영화 수출계약을 대행해 왔다. 그러나 수년동안에 걸친 이런 시도에도 불구하고 영진공이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한 데는 제작자들의 인식부족에 따른 비협조적 태도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영화의 세계 인지도에 무지한 일부제작자들은 수익원의 돈을 들여 제작한 영화를 할값(?)에 팔아넘길 수 없다는 자만심(?) 때문인지 판매를 거부했다. 기껏 영진공이 수출 기계야 해온 영화 판권을 해약해야 하는 사태가 종종 발생했

고, 이런 상황은 한국의 대외적 영화수출 참고역할을 맡은 기구인 영진공의 신용을 추락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실을 직각한 몇몇 영화사에서는 보다 자신있게 영화수출을 세계시장에 내놓는 일환으로 국제적 인지도를 가진 기존의 해외 배급사를 접촉해 배급대항을 맡기는 사례로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는 박철수 감독의 <301·302>가 미국의 '에로우'영화사에서 배급대항을 맡아 미국내에서도 좋은 실적을 거두었으며, 이만우 감독의 <개같은 날의 오후>가 네델란드의 '포르티시모'란 독립예술영화 전문배급사에 맡겨져 10여개국에 수출 계약을 완료한 바 있고, 장선우 감독의 <꽃잎>이 영국의 전문 배급사 '메이페어'에 위탁되어 세계배급의 길을 터놓은 것 등을 들 수 있겠다.

한편 이와 같이 배급사를 통하지 않고 영화사가 직접 나서서 국제영화마켓에서 세일즈 역할을 담당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졌는데 작년 5월 칸느마켓에서 '신세계'가 부스를 차리고 강제규감독

正道경영·초우량 LG

난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대형 사고를 쳤다.



늦은 오후, 회사 엘리베이터 안이였어. 돌만 있기 어색해 빙 둘러보다 갑자기 카메라를 발견했지. 그렇게 찾아헤매던 벤처사업 아이디어가 거기 있었던 거야. 원격 감시 시스템의 원리를 응용해 바로 도전해보기로 결정했지. 아이디어만 좋으면 자금은 회사에서 다 대주고 잘 될 땐 플러스 알파까지 보장해준다는 벤처사업! 그날 바로 동료 4명과 Dream Team을 만들었고 사업계획서를 쓰기 시작했지. 결국, 도로 원격 감시 시스템을 통한 교통정보사업 아이디어로, 와우! 우린 100억을 지원받는 사업가가 되고만거야~

LG 벤처사업 제1팀, 교통정보사업팀 진서용 대리(LG선전 소속)

꿈과 아이디어가 만나면 그것은 벤처!  
LG는 자금과 기술의 전문적 지원을 통해, 젊은 LG인의 정열 마인드를 고무시키고 잠재력 있는 사업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국내 기업 최초로 사내 벤처(Venture)사업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LG/인재개발위원회  
http://www.lg.co.kr

# 일반 휴학 학칙 개정

## 연장서 제출시 3년연속 휴학가능

교무처(처장=김주환·지리교육) 학적과는 기존 일반휴학 학사규정을 개정하여 이번 학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비록 학칙의 주요 특징을 보면 단일 반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원칙으로 하되, 2학기를 초과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연장학을 학적과에 제출하여 허가받을 수 있다.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2학기까지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밖에 △가정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학을 계속할 수 없거나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할 수 없는 학생은 학기개시 10일 이내에 보호자가 연서한 소정양식의 일반휴학원을 소속대학 교학과를 경유, 학적과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칙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사유발생 10일 이내에 보호자가 연서한 소정양식의 일반휴학원에 종합병원장이 발행하는 2개월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등이다.

이에 학적과 이우용계장은 "휴학도 중 장기여행이나 어학연수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이들에게 많은 편의를 줄 것"이라 밝히며 "주의할 점은 연속하여 3년동안 휴학 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2학기 단위로 연장서를 학적과에 제출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그릴, 세트메뉴로 배급

생활협동조합 발기인회(위원장=김진철·정치교육)는 오늘(7일)부터 개교 90주년기념 문화관 그릴의 운영 형태를 기존 카페테리아식에서 세트메뉴 배급으로 바꾼다. 점심식사 이용에 편의를 주기위해 카페테리아식을 중단하고 학생들에게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1천5백원, 교직원에게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3천원에서 4천5백원대의 가격으로 식사를 판매할 예정이다. 한편, 기타 주문메뉴와 행사식은 기존대로 운영을 하게 된다.

# 총학 및 각단과대 진군식 치뤄

## 실천행사도중 전경·학생 몸싸움... 본교생 2명 부상당해

김영삼 집권 7년 총파산 선고와 자주학원 건설을 위한 총학생회 진군식이 지난 28일 오후 1시 중앙도서관 앞에서 3백여명의 학생이 모인 가운데 치뤄졌다. '아리랑'의 문화공연으로 시작한 총학생회 진군식은 개막선언, 애국예배, 정치발언, 단과대 학생회장들 소개, 진군식 선언문 낭독으로 이어졌다.

이후 한총련 총궐기 투쟁에 참가하기 위해 헌대대로 행하던 학생들은 후문 앞 녹두 사거리에서 대가하던 3백여명의 전경들에 의해 저지당했고 학생과 전경과의 몸싸움이 벌어져 본교생 2명이 머리가 깨지고 손이 찢어지는 등의 부상을 당했다. 중문에서도 2백여명의 전경들이 학생들을 막았고 이에 학생들은 화염병을 던지고 전경들은 최루탄을 쏘는 등 공방전이 계속됐다. 흩어져서 학교를 나온 학생들은 한총련 총궐기투쟁에 참가하기위해 연세대로 행하던 중 4명이 연행, 3명은

혼란조치로 1명은 구류로 풀려났다. 한편, 지난 27일 오후 6시 30분에 만해광장에서 치뤄진 진군식 전야제는 새내기 뽑내기 한마당으로 시작하여 동국문화회와 탈에서 준비한 문화공연, 새내기 농구대회 시상식 등으로 이어졌다. 새내기 농구대회에서 1등은 체육교육과, 2등은 생명자원과학부, 3등은 경찰행정학과가 각각 차지했다.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2일까지 치뤄진 각 단과대 출범식은 다음과 같다. 문과대: 지난 25일 오후 5시 30분 명진관에서 시작한 문과대 출범식은 선배들의 응원공연과 각 과 학생회장·인문학부 학생회장의 인사, 문과대 학생회장·부학생회장 인사, 집행부들 인사로 이어졌다. 경산대: 지난 25일 통일광장에서 치뤄진 경산대 출범식은 약 80여명이 참여한 가

운데 고사, 응원, 새내기 장기자랑, 각 학생회장 인사, 노래패 노래공연 등으로 꾸며졌다. 사범대: 지난 25일 오후 3시 학림관 앞에서 고사로 시작으로 한 사범대 출범식은 학생회장 응원, 집행부 인사, 각 과별 새내기 춘곡 경연대회로 이어졌다. 예술대: 개교 90주년 기념문화관 지하 전시실에서 지난 4월 2일 오후 5시 고사를 시작으로 한 예술대 출범식은 풍물패 공연과 새내기들의 응원공연으로 꾸며졌다. 이간김좌: 지난 28일 오후 6시 통일광장에서 진행된 아총 출범식은 새내기 뽑내기 한마당, 각 과 학생회장 및 각 계열 학부학생회장 인사, 문화공연, 응원의 순서로 진행됐다.

# 전자부품산업 현안과 방향

## 오는 10일 세미나 개최

산업기술연구원(원장=이문보·건축공학)과 자연과학연구원(원장=이종춘·수학)은 오는 10일 오후 4시 개교 90주년기념 문화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내 전자부품산업의 현안과 향후 정책 방향'의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현재 우리나라 전자부품산업의 전반적인 흐름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통상산업부 홍석우 전자부품과장의 설명으로 진행되어, 전자공학 및 전기공학을 전공하는 학생 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생들에게도 한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자부품산업을 인식하고 앞으로 경제발전에서 어떻게 이바지 할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졸준위, 졸업앨범업체 주도 스튜디오 선정

98년도 졸업앨범업체 최종 선정이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박상욱·경제4) 이하 졸준위)추천으로 졸준위 위원장 및 사무장을 포함하여 총 12명의 상임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문과대 상임위원의 98학년도 졸업앨범 업체방문 보고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투표방안 논의 △각 업체 브리핑 △투표로 이어졌고 투표방안은 논의를 결친 결과 상임위원이 각각 2개의 투표권을 행사하고 가장 많이 지지를 얻은 업체가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할 때만 업체선정이 이루어지고 만약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는 재투표에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어 진행된 업체 브리핑은 그랜드 스튜디오, 도아인쇄, 주도 스튜디오가 각각 15분씩의 시간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됐고 마지막 투표과정에서는 △그랜드 스튜디오=8표 △도아 인쇄=0표 △주도 스튜디오=16표씩 득표해 주도 스튜디오가 최종선정되었다. 한편, 주도 스튜디오는 이로서 제작년부터 3년째 본교 졸업앨범을 제작하게 되었으며 앨범 및 CD롬의 경우 △5월 중순에 다양한 포즈사진을 찍고 나서 학생들의 선택,재촬영 가능 △CD롬의 화면보호기능 △혼자서 만들 수 있는 요리법, 피입법 등의 부가서비스 등이 있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 본사, 창간 47주년 기념 특강

본사는 오는 15일 통대신문 창간 47주년을 맞이해 주간 내일신문 정영국 운영위원장을 초청해 '코페르니쿠스적 사고의 변화가 필요하다'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읽는 새로운 시각에 관하여'라는 주제의 특강을 개최한다. 개교 90주년 기념 학술관 세미나 3실에서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이번 특강에 많은 동국인의 참여가 있길 바란다.

# 학·전·무·대

## 백언이 불어일행

백언이 불어일행(O...자나 4월 1일 청와대, 3일이 오랜만에 입을 모았다. 다음날이나 '경계안 타게'라는 현안에 대한 영수회담에서 명바닥에 떨어진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라고 3일이 화합(?)을 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말뿐인 한국 정치인이라는 것을 알아버린 듯 기대는커녕 시큰둥한 표정을 짓기만 한다. 이에 한 시민 한마디 '백언(言)이 불어일행(行)이라 했거늘...'

### 전공 필수

O...선후배, 동기들간의 화합을 다지기 위해 자연으로 떠나는 MT. 예전엔 MT에 못가서 안달이었지만 요즘에 들어서는 '어떻게 하면 빠질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이렇게 저렇게 대고 배려해 개인시간을 갖는 것이 지금 대학가의 모습. 학과대표들은 한 명이라도 풀어들이기에 바쁘고, 학생들은 핑계대기에 바쁘고... 이런 추세로 간다면 곧 MT가 없어지게 될 지도 모른다. 이에 MT용호론자 한마디 'MT를 전공필수과목으로 하는 건 어떻습니까?'

### 두통

O...메일 공부만 하다 어렵게 들어온 대학. 캠퍼스의 꿈과 낭만이 있어야 할 대학이 왜 입시 열풍, 남보다 잘해야만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다는 선배들의 조언 아닌 조언, 도서관에는 자리가 없어서 배회하는 신입생들. 이곳이 정말 지식의 상아탑인지 아닌지. 이에 한 강의실에서 공부하는 신입생 왈 "고등학교 때도 내신 때문에 머리 아프더니 상대평가때 때문에 머리가 아픈 줄이야"

### 쓰레기 먼저

O...각 단과별로 출범식을 했다. 출범식은 시작을 의미하니 뜻깊은 자리일 듯. 대체로 준비 속에 처음 맛보는 신입생들의 즐거움, 누구(?) 정권 타도를 외치며 계속 이어지는 프로그램 속에 빠뜨리는 졸업의 열정(?). 하지만 출범식이 끝난 자리는 왠지 쓰레기 더미 속에 빠진 기분. 깔고 앉던 신문지를 내팽개쳐 치고 자리를 뜨는 학생들. 이에 회전부대자 왈 "정권 타도는 쓰레기 타도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 인터뷰 김중관(건축공학과 4학년군)

## 97 지산학생 건축 공모전 대상수상

### "마음껏 작업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됐으면..."



97 지산학생 건축공모전에서 대상 수상한 건축공학과 4학년 김중관군을 만났다. -이번 공모전에 응모한 동기는 =건축공학과대니 특성상 공모전에 대해 많이 알게 된다. 처음 열리는 공모전이지만 유럽건축기행이라는 상품에 끌려 응모하게 되었다. -이번 공모전에 대해 설명하면 = 건축인 인재양성과 장학선 발을 위해 지산장학회에서 개최한 공모전으로 대구에 있는 백화점앞의 광장을 설계하는 것이다. -수상소감은 = 입선까지는 기대했지만 대상을 받을 줄은 몰랐다. 운이 좋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많은 도움을 준 과 동거나 후배에게

고마울 뿐이다. -지산만의 설계방법이 있다면 =주어진 상황을 고려해 상상을 통해 설계한다. 틀림이 없었던 소설책 속에서 아이디어를 얻는다. -공모전 준비과정 중 힘들었던 점은 =지난 1월에 조사자 4명정도 대구에 내려갔고 2월에 약 한달간 작업을 했다. 작업기간동안 한 열흘 학교에서 밤샘작업을 하니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좋아하는 일이라 피곤한 줄 몰랐다. 그런것 보다 학교에서 밤 새면서 작업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을 때 설계실의 좁고 불편한 것이 더 힘들었다. 마음껏 자유롭게 밤새면서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면 한다. -지산만의 설계방식은 =평소 미학적으로 접근해서 공감을 살리는 것이 장점이라는 평을 자주 들었다. -앞으로는 계획은 =수많은 건물중 작품이라할 건물을 남기고 싶다. 지난 건축대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이상문학전시관을 보고 많은 걸 느꼈다. 나도 내면을 건축하고 싶고 싶다. (심미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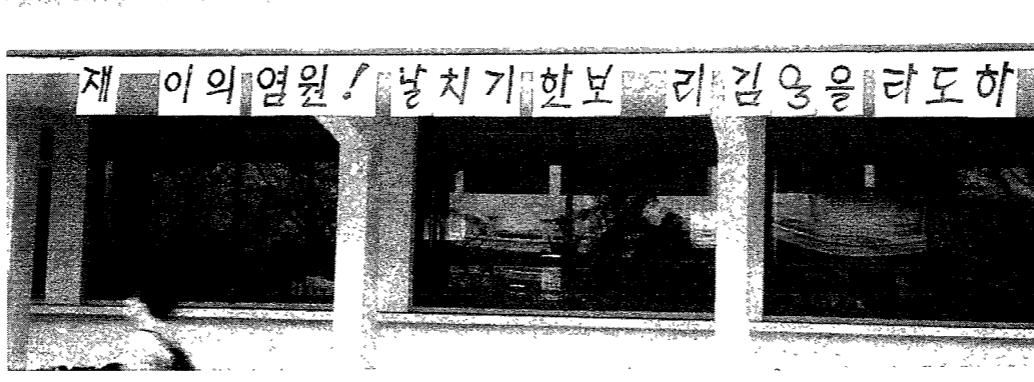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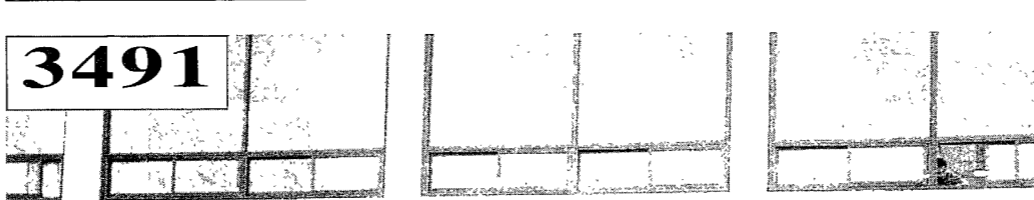
# 동연, 출범식 및 동아리 박람회 열어

## 동아리 소개·신입생 모집 위해... 영화제·의식조사·연극공연등

동아리연합회(회장=김명희·역교4)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동아리 박람회'를 개최했다. 지난 31일 오후 6시 학생회관에서 진행된 동아리 연합회 출범식을 시작으로 한 '동아리 박람회'는 동아리 소개와 신입생모집을 하나의 볼거리를 위해서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개최되었다.

각 동아리별 활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연과학연구회 = 4월 1일부터 4일까지 학생회관에서 '동국대 새내기 의식조사' 실시 △통계 조사 연구회 = '전체 관측 사진' 전시회를 학생회관에서 4월 1일부터 4일까지 가졌다. △컴퓨터 연구회 = 4월 1일부터 3일까지 프로그램 전시 △동그라미=

지난 4월 2일부터 4일까지 '동그라미 사진전' △디디들 = 지난 4월 1일부터 3일까지 중앙당에서 '새나기를 위한 영화제' 상영 △경당 = 지난 4월 1일 학생회관에서 시연 △봉사봉과 =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체육대회 개최 △극예술연구회 = 지난 4월 2일부터 5일까지 '달리다 저승' 공연



이 사진 선전물... 중앙도서관에 붙여있는 뜻을 알수 없는 선전을 알고보니 재물이의 영원! 날치기 한보리 김 03을 타도하 지 라는데 사진 글자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오인택 기자)

# '97년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공고

- 교육대상 : 본교 예비군 전원
- 교육 대상제외자
  - ◇ 97년도 전역자
  - ◇ '91. 12. 31일 이전에 전역한 사병
  - ◇ '89. 12. 31일 이전에 전역한 장기하사 이상 간부
- 교육 시간 : 8시간
- 교육 일정(대학별)
 

4.28(월)	4.29(화)	4.30(수)	5.2(금)
공과대	문과대	이부대	법과대
불교대	사과대	사범대	이과대
	경산대	생과대	대학원
		예술대	교직원
- 교육 장소 : 노고산 중로 중구 훈련장(제 1905부대)
  - ◇ 구파발 전철역에서 승차방향으로 300m지점에 동국대표시한 관 광버스대기(06:30~07:10까지만 운영)
  - ◇ 시내버스 : 구파발 전철역에서 156번 (북한산상-송추행) 이용
    - \* 156번 중에 삼천리굴행, 일영경유 송추행 절대 탑승금지
- 복합 : 예비군 복(전투복, 전투모, 고무링, 허리띠)
- 휴대품 : 신분증, 주민등록증 지참(본실자 : 학생증, 면허증, 예비군연대에서 편성카드 복사)
- 특별(유의)강조사항
  - 1) 08:00이후 훈련장 도착자 입소불가(위험성 통제)
  - 2) 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고무링, 허리띠 중 1가지라도 미착용자 절대 입소 불가
  - 3) 학교에 잘 나오지 않아 공고문을 보지 못했다거나 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지 못해 교육일정을 알지 못했다면 이유는 해결방안이 되지 않으므로 예비군 신분은 재학생은 예비군 연대 본부에 수시로 문의 바랍니다.
  - 4) 해당 일자에 교육을 참석 못할 경우는 사전에 예비군 본부 (Tel.260-3072~3)으로 신고 바랍니다

동국대학교 예비군 연대장

# '97년 예비군 교육시 유의사항

- 입소기간 준수 : 08:00시 이후는 절대 입소 불가 (지각자는 어떠한 이유도 해결이 안됨)
- 예비군 복장 착용절차 : 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고무링, 허리띠 모두 착용 (단 한가지라도 미착용시 절대 입소 불가)
- 교육 일정 준수 : 지정된 교육일자에 필히 참석 바람
 

4.28(월)	4.29(화)	4.30(수)	5.2(금)
공과대	문과대	이부대	법과대
불교대	사과대	사범대	이과대
	경산대	생과대	대학원
		예술대	교직원
- 기타 강조사항
  - 가. 주민등록증(학생증) 반드시 휴대
  - 나. 예비군 훈련장 주차장 대형버스 진출입시 안전사고 주의
  - 다. 이동, 교육중 각종 안전사고 주의
  - 라. 집시, 라디오 등 개인용품 휴대금지
  - 마. 학교에 잘 나오지 않는 예비군에게도 연락바람
  - 바. 지정된 교육일정에 불참시 발생시 예비군 본부 (Tel. 260-3072~3)로 사전에 문의 바람

동국대학교 예비군 연대장

# 4·19기념 제 28회 동국인 등산대회

- 4·19 혁명 37주년을 맞이하여 선열들의 참 뜻을 되새기고, 동국인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한 제 28회 동국인 등산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코자 하오니 동국을 사랑하는 많은 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1997. 4. 18(금), 09:00~17:00
- 장소 : 북한산(4·19탑)~대동문~북한산장~위문~하루재~도선사
- 참가대상 : 전 동국인
- 행사 내용 : 4·19기념식, 등산대회, 장기자랑 및 시상식
- 구성
  - 가. 4인 1조 : 학(부)과, 동아리, 대학원, 동문 등 자유롭게 구성
  - 나. 학과팀 : 5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교수 2인 이상 참가
- 시상
  - 가. 최우수상, 우수상, 자연보호상, 장기자랑(참가자) 나. 학과상
    - 1) 상금 : 금상(₩1,000,000), 은상(₩500,000), 동상(₩300,000)
    - 2) 참가신청과 심사(참가율 우선)는 별도로 한다.
    - 3) 다수의 학과가 심사대상일 경우는 대회 운영상 대상과 시상상을 조정함.
  7. 접수기간 : '97. 4. (월)~4. 17(금)
  8. 접수처 : 동국대학교 학생과 (Tel. 260-3047~8), 신약부(다함관 앞)

### \*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이 제공됩니다.

# 외국어 특강 안내(2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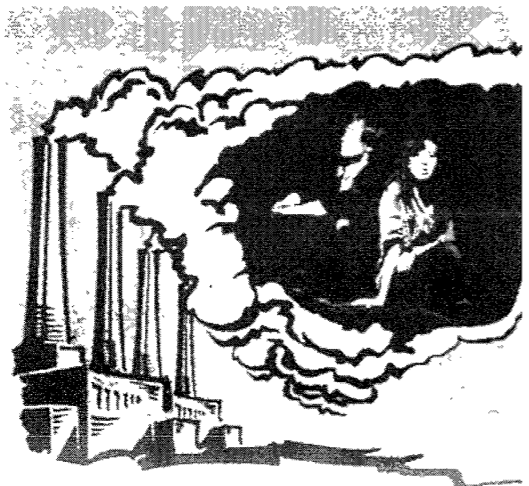
과목	영어회화					TOEIC	APKN Listening
	Intermediate	High Intermediate	Advanced	Intermediate	High Intermediate		
강사 및 강의실	Angella Gatos (강의실 A)	Roy Partain(L206)	Paul Leslie(L309)	Troy Body (강의실 A)	Dennis Prieto (강의실 B)	Martin Sherrad (Lab A)	Irene Hanssen (Lab A)
	Nicholas Garrison (강의실 B)	Leon Kaye(L207)	Janet Glendinning (L310)				
시간	오전 7:50~8:50			오후 5:00~6:00		오전 7:50~8:50	오후 5:00~6:00
기간	'97. 4. 21~5. 30(6주)						
수강료	50,000원						
접수처	외국어교육원 (동국관 1동 2층)						
접수기간	'97. 4. 14~선착순접수						

동국대학교 외국어교육원

◇연극 '구로동 연가'를 보고

## 노동자들의 삶·애환을 그린 음악극 "지금도 구로동 어느공장에서 사랑의 노래가 들려온다"

'공간에 발이 내리면 노동으로 부패된 육신에도 사랑은 스며든다...'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사랑을 통해 그들의 삶과 애환을 그리는 연극 '구로동 연가'가 대학로 오늘 소극장에서 막을 올렸다. 가극단 '남강'의 주최, 한겨레 신문사의 후원으로 막을 올린 이 연극은 김정현 연출로 지난 4월 2일부터 12일간 공연을 하는 음악극이다.



주제곡 '공간'의 연가처럼 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연극이 시작되면 공장의 기계소리와 거대한 굴뚝이 내뿜는 시커먼 연기 속에서 지친 표정의 근로자들이 뿔뿔이 나온다. 시대적 배경은 1980년대 초반, 장소는 구로공단 일대.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 찬대와 멸시를 당하며 하루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노동자인 나리와 민영, 혜숙, 선미, 배세 이지씨, 철이. 그들의 애수에 찬 표정과 노래가 사, 대사엔 서글픔이 배어있다.

"어라 실발 나도 세월이다 세월이다 삼천원도 좋고 이천원도 좋다 싸구려 사구려 싸구려 싸구려 싸구려~" 다만 내 이 슬픔도 절망도 분노까지 함께 사가야해!" 남자 주인공인 민영의 절규에 가까운 노래가사이다. 공장과의 인척관계로 작업반장이 된 박반장은 출세를 위해 반일들을 흑사시키고 지위를 이용해 사람들을 괴롭힌다. 생계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일당 4천원을 받으며 갖은 모욕을 당하는 그들은 그래도 남몰래 잘 살겠다는 막연하고 소박한 희망으로 참고 견뎌 낸다. 민영과 나리는 힘든 공장생활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된다. 고향을 떠나고 고향을 잃고, 고향이 어디지도 모르는 이들에게 고향은

은 지금의 어려운 노동자들을 떠올리게 한다. 민영은 절박한 심정에 박반장을 찾아가지만 말이 오가던 중 주먹을 휘두르게 되고 결국 경찰에 넘겨진다. 나리는 민영을 구하기 위해 박반장에게 자신의 몸을 허락하고, 풀려난 민영은 혜숙의 술집에 갔다가 나리와 함께 있는

반반장을 보고 칼로 찌른다. 경찰에게 체포된 민영에게 나리는 고향에 내려가 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을 다짐하며 연극의 막은 내린다.

"구로동 연가"의 연출자인 김정현씨는 '빛바랜 이야기'이지만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시대에에도 남아 있는 부분들"이라며 "우리사회는 이야기 속 사람들의 힘으로 만들어져 온 것으로, 우리는 절대 그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연극은 잔잔한 감동을 불러 일으키는 공연이 끝난 후에도 그 감동이 수그러들지 않는다. 불합리한 노동의 대가, 하지만 작은 꿈을 가꾸며 살아가는 노동자들, 그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사랑...

지금도 구로동 어느 공장에서 사랑의 연가가 들려오는 듯 하다. (김용환 기자)

##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토론회' 진행 '성' 탄압수단으로 악용... 데이상 묵인되선 안된다

지난 3월 31일 서울대학교 박물관 대강당에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초청발제자는 추미애 새정치국민회의 국회의원, 남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박래근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이종걸 변호사, 관악여성상담소(주) 이현정 이었다. 대토론회는 지난 8월 연세대 진압과 정에서 벌어진 여대생 성추행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사건개요의 간단한 발제에 이어서 영상자료가 강연되었다. 연행과정에서 바로 자신에게 벌어진, 군화 신은 남자에게 의해 집단적으로 자행된 성추행 및 언어 폭력의 실상을 고백하는 여학우들의 목소리가 강연안을 메워 나갔다. 이어서 연사들의 주제별 발제가 이루어지고 이후 짧은 시간 토론이 이어졌다.

비상식적인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의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가는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금 상기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성폭력은 남성의 주체 불가능한 성욕을 자극하는 여성이 원인이다. 성폭력을 안 당하려면 자책하든 더운 여름이라도 짧은 옷을 입으면 안된다. 무거운 여름, 그다지 깨끗하지도 않은 물결로 연행되어 나오면 여학우들이 연행하던 경찰에 의해 집단 성희롱을 당했다. 그들은 아마도 핫팬츠에 '나시'를 입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집에도 못가 시위집합의 경계상황이라는 긴장감 속에서 며칠을 보낸 20대의 여인네들이 그들의 손 안에서 꿈꾸는 상쾌로 무더기로 쏟아지니 그 상황에서 성욕을 자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연행된 여학우들이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글이 통신에 올라왔다. 혼자만의 외침이고 분노만이 존재할 뿐이었고 그 진상은 그저 쓴소문으로 덮혀질 뿐이었다. 피해조사가 이루어지고 신고자와 목격자가 나 타났을 때에도 '시위집합과정에서 연행자를 다룰 때는 조심해야 한다'라는 아주 조그만 여론의 움직임도 없었다.

쓴소문을 믿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언어 중에서도 '발광이 녀를 당해도 싸'라는 말이 지배적이었다. 이 말은 '당해도 한 녀'들을 혼내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성(性)이라는 것이 지대한 공헌을 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이것은 '도덕적이어야 하는 경찰의 분발을 잊은 일부 몰지각하고 성욕이 강한 경찰'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되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 사소한 문제가 아니며 '경찰의 도덕성을 회복하자'는 차원의 문제도 아니다. 토론화에서는 성 범죄가 묵인되고 조장되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사도처에서 성범죄에 노출되어있는 여성들에게 이 일은 '네모하는 여학생'의 일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또한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고 여성을 유린한 성범죄라는 점과 여성의 성(性)이 지한 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문제를 함께 제기하였다.

토론회가 성사되기 2일전인 29일 정오뉴스에 이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분노하지 않는다. 남성 중심적인 사회구조 안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였다. 토론회는 지난 연세대에에서의 성추행 사건으로 진행되었지만 그 안에 단단히 자리잡은 구조적인 모습들을 들추어 내는 것이야말로 토론회의 가장 큰 의의라 하겠다. 토론회에 참가한 4백여 학우들은 여성이 언제 어디서라도 '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면서, 그것의 극단적인 형상으로 나타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문제해결의 당위성을 재확인하면서 아쉬운 토론회를 끝맺었다.

토론회를 하면서 공명해지는 것 하나가 있다. '누가 그들에게 강간할 권리를 주었는가'

'범죄율이 분명함 그들의 행동이 당연시되고 심지어 정당화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홍미리  
(충우학생회 부학생회장)

## 외설논쟁

청소년이 인터넷에서 음란물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작동해 접속을 끊거나 접속을 막아버리는 프로그램과 컴퓨터에 저장된 음란 파일을 삭제해 없앨 수 있는 소프트 웨어가 개발되었다는 소식 못할 소식이 들린다. 현재 우리 주위의 많은 문화상품들이 음란·외설물이라는 딱지가 붙여져 비판받고 있다.

그 한편으로는 예술작품에 대한 사법적 처리가 문제되고 있다. 몇 년전 마광수 교수와 연극 비판자가 썼던 법정에 이반연 장정일과 연극 '속마'의 마지막 시도가 있었다. 그리고 절대 명쾌히 끝나지 않을 소모적인 탁상공론, '외설이나 예술이냐' 논쟁이 또 한 번 지지부진하게 되풀이되고 있으며, 외설물에 대한 재판과정과 예술인들의 자체대응 역시 실소를 금치 못하게 만들고 있다.

장정일의 '내게 거짓말을 해봐'가 삼판에 올랐던 법정의 풍경은 코미디처럼 보였다. 판사가 미성년자와 여성에게 퇴장을 요구했고, 소설 중 제1회 '이한'부분을 읽어내려가던 검사도 "이거 계속 읽어내려가"고 묻자 판사는 "그부분(성기묘사부분)만 빼고 읽으라"는 제안을 했으며, 다 읽고 난 검사는 작가에게 "이것이 정말 변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고 물었다고 한다. 그리고 '속마' 마지막 시도의 제작자와 연출자가 구속되면서 외설논쟁이 문제화 되자, 한국언론협회에서는 '불어짜 저질연극'이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으며 외설연극에 맞 대응할만한 수준 높은 '에로티시즘 연극'을 선정하여 발표하는 유치한 대응책(?)을 펴기도 했다.

위와 같은 상황이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것은 늘 반복되고 있는 해프닝일뿐이며, 핵심을 놓치고 헛발질은 요식행위라는 점에 있다.

성의 억압과 성의 상품화가 공존하며, 성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는 외설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한 단죄에 있어서도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게 마련이다. 그 결과 성의 거래를 금지한 법률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공공연히 성행위나 성소플스러운 작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외설논쟁은 '어디까지 벗을 수 있나' 또는 예술이나 외설이나를 구분할 법적기준이 생겨나고 해서 사라질 것이 아니다. 윤리행위양자법이 때때론 존재를 위협하게 만들지 않는 현실에서,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염려하고 음란·외설물화를 추방하자고 떠드는 제도인론들은 그들의 또다른 매체인 스포츠 신문들 통해 바깥의 음란·외설물화를 유혹시키고 있다. 외설물에 대해 서술하던 칼럼을 가지고 있는 듯한 검찰은 수차례 문제가 제기되고 불매운동까지 벌였던 그 스포츠신문을 수사조차 하지 않는 현실에서, 왜 우리는 도대체 명료해질 수 없는 예술이나 외설이라는 논쟁에 골머리를 앓아야 하는가 말이다.

문제는 음란 외설물이라 이름되는 상품들이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자체이며 그 문제를 낳은 사회구조이다. 성의 억압과 상품화는 당연히 자본주의사회의 이윤창출과 남성 중심사회의 폭력성을 옹호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성에 대한 공공연한 논의는 성의 억압과 상품화에 대한 반항과 정면적 문제제기일 것이다. 그러나 외설논쟁은 성에 대한 논의를 교란함으로써 그 본질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것일 뿐이다. 억압된 성과 상품화에 대한 전면적인 논의는 외설논쟁 뒤로 감춰져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이즈음의 외설논쟁은 지겨운 뿐 아니라 어리석기까지 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다.

정희정  
(오늘엔라 편집위원)

### 항상 그리움의 대상이다.

추석이 다가오자 모두들 고향에 간다는 일념으로 철야작업을 계속하지만 회사측은 약속했던 추석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목소리를 높이지 못한다. 가진자의 횡포로 없는 자의 슬픔이 극에 달하는 그 순간. 보는 이들은 격분을 참지 못해 가슴이 짝 막혀버린다.

민영과의 결혼문제로 갈등을 겪던 나리는 사표를 내고 다른 공장으로 옮겨가고, 보너스 무기연기 반대농성에 가담한 민영과 혜숙은 해고를 당하게 된다. 혜숙은 꿈을 파는 술집여자로서 전락하고, 민영은 우연히 나리를 만나 그녀의 자취방에 기거를 하지만 나리는 그런 민영의 태도를 싫어한다. 민영은 직업을 구하기 위해 이리저리 이력서를 내 보지만 그의 모습은 더욱 더 초라해 지지만 한다. 한 폭속 바벌이 할 지리가 없어 해메이는 그의 모습

는 반반장을 보고 칼로 찌른다. 경찰에게 체포된 민영에게 나리는 고향에 내려가 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을 다짐하며 연극의 막은 내린다.

"구로동 연가"의 연출자인 김정현씨는 '빛바랜 이야기'이지만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시대에에도 남아 있는 부분들"이라며 "우리사회는 이야기 속 사람들의 힘으로 만들어져 온 것으로, 우리는 절대 그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연극은 잔잔한 감동을 불러 일으키는 공연이 끝난 후에도 그 감동이 수그러들지 않는다. 불합리한 노동의 대가, 하지만 작은 꿈을 가꾸며 살아가는 노동자들, 그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사랑...

지금도 구로동 어느 공장에서 사랑의 연가가 들려오는 듯 하다. (김용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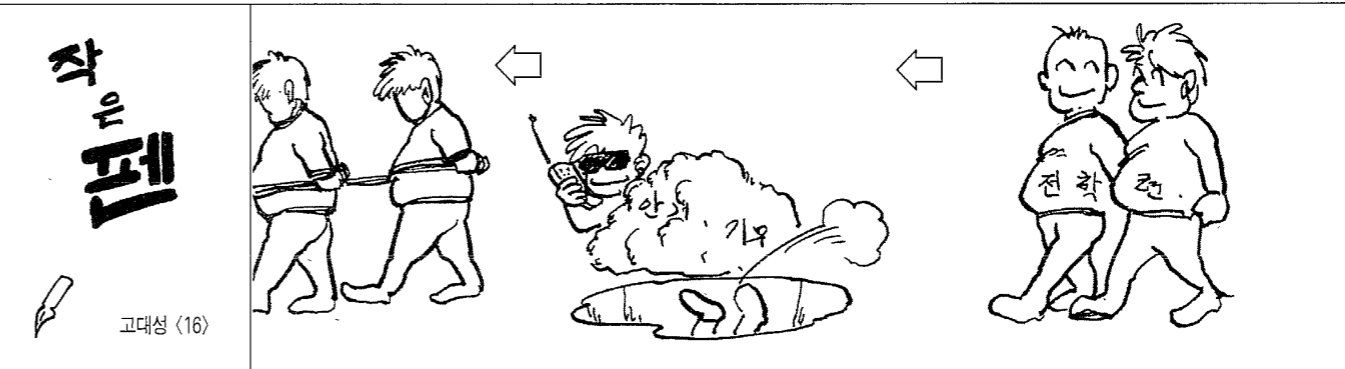
### 메아리

### 변혁

▲한총련 탈퇴 성명서 "...한총련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투쟁노선을 고집, 결국 국민 대다수로부터 비판과 질타를 면할 수 없는 시행착오를 되풀이... 이제 우리의 학생운동은 대안없는 통일운동과 정치투쟁 일변에서 벗어나 대다수 학생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건전한 비판을 통한 사회 및 대학발전을 도모..." ▲반박성명서 "...변화는 김영삼 정권의 통치 이데올로기에 유포한 환상 속의 변화일 따름...한총련은 학우와 국민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존립자체가 무의미한 조직이다...가인대학에 아닌 대학이 탈퇴를 주장하는 것은...한총련에 대한 여론을 호도하여 한총련에 대한 위상을 실추시키려는 불순한 의도..." ▲어는 대학에서 한총련 주최 시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인감파를 만들어 시위대를 막은 적

반박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세태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운동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다 한다. 그러나 세태의 형태는 변했으나 학생운동의 형태는 변하지 않았다. 70, 80년대의 이데올로기는 이제 없다. 그 이데올로기와 함께 했던 행동방식이 그 이데올로기가 없어 행동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괴리가 생긴 것이다. 그 괴리를 극복하려는 어떠한 모색이 강구되지 않는다고 느낀 세력들은 무조건 반대하거나 기피하기도 한다. 사실 학부세대들은 계열중심으로, 이전과 차별성있는 학생운동을 펼쳐겠다는 것을 기치로 삼고 있다. ▲현실을 비판한다고 하지만 현실속에서 비판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것이 못된다. 기존 학생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은>

이 있었다. 이어 지난 3월 26일 이른바 대전·충남지역 전진전 총학생회 연합의 한총련 탈퇴 성명서 발표로 한총련에 대한 거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안기부관련 의혹이 던져지는 등 그 의도가 순수했으나 아니냐는 의심이 가지만 분명한 것이 있다. 한총련에 대한 거부나



고대성 (16)

# 한국의 젊음이, 그대를 베세토海의 제독으로 임명한다!

베이징, 서울, 도쿄를 잇는 동북아시아는 21C 세계의 중심, 베세토海... 그 바다에 한국의 젊음 이백령을 파견합니다.

**삼성 BESETO ADVENTURE가 진취적인 젊음을 기다립니다**

**BESETO란?**  
북경(Beijing)·서울(Seoul)·동경(Tokyo)의 합성으로 21C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동북아의 중심축을 의미함.  
3) 개인별 자기소개서 (자유양식) 작성, 제출

**SAMSUNG BESETO ADVENTURE**는 21C 베세토 시대의 주역이 될 한국의 대학생들이 삼성에서 제공하는 동북아 평화의 배를 타고 중국과 일본의 바닷길을 따라 역사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임.

**1. BESETO ADVENTURE 개요**

ADVENTURE 지역	선발인원	ADVENTURE 기간(예정)
일본	100명	7.20~7.31(11월12일)
중국	100명	8.10~8.21(11월12일)

□ 주요 ADVENTURE 지역은?  
중국·북경, 청도, 상해, 소주 및 남경·진강등 양자강(중강) 유역  
일본·동경, 나가사키, 후쿠오카, 삿포로, 오사카, 고베, 교토, 히로시마

□ 주요 프로그램은?  
삼성 지역문화기행의 지역문화/양자강-세토해로 코루츠 / 현지 대학생과의 forum / 국제 자원봉사 산성세미나 / 삼성 현지 문화공연 / 인터넷 정보상상대회 등

**2. 지원 자격**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정규 4년제 대학(고) 재학생

**3. 지원 방법**  
1) 3인 1팀으로 지원 (동일대학) 아-래도 지원가능. 전공 제한 없음  
2) 일본, 중국지역 중 택일

**4. 제출 서류**  
■ 응모대야 (택일)  
① '당신에게 어떤 일이 있든 21C 세계의 중심이 되는 동북아 발전을 위해 어떤 사업을 펼치겠는가(사업계획서)' \*  
② 21C 동북아 발전을 위한 청년들의 역할

2) 참가원서 (리플렛에 부착된 소영양식)  
- 복사하여 서명가능  
3) 개인별 자기소개서 (자유양식) 작성, 제출

**5. 지원서 교부**  
1) 교부처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58-9 중앙빌딩 5층 509호 (각대학 학생처(지)에서 교부받을 수 있음.)  
2) 교부기간: 4/3(목)~4/25(금) 오전8시~오후4시

**6. 지원서 제출**  
1) 접수처  
① 우편접수: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58-9 중앙빌딩 9층 901호 삼성 BESETO ADVENTURE 사무국  
TEL. 02-729-9802~3  
② 방문접수: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58-9 중앙빌딩 5층 509호 (각대학 학생처(지)에서 교부받을 수 있음.) \* 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봉에 함합니다.

**7. 선발방법 및 결과 발표**  
1) 1차 서류심사 (결과: 5월중 개별통보)  
2) 2차: 테마기행서 프리젠테이션 면접 및 신체검사 \* 면접은 외부인사가 참여하여 실시됩니다.  
3) 합격자 발표: 1997년 6월 10일지 (토) 스포츠신문 및 개별통보

**8. ADVENTURE 후 제후사항**  
- ADVENTURE 후 17월 이내 탐방기 제출 (탐방기 발표대회 개최 예정)

**9. 기타**  
1) 재출원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http://www.samsung.com) 및 유-메일(Go Samsung)로 확인하십시오.  
3) BESETO ADVENTURE 관련 모든 비용은 삼성에서 지원됩니다.